도서관의 후원기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undraising and Sponsorship for the Library

노 문 자(Moon-Ja Ro)*

목 차

1. 서 론
2. 후원기금의 용어에 대한 개념
3. 후원기금의 발달 과정
4. 후원기금의 목적
5. 도서관과 후원기금
5.1 도서관법과 후원기금
5.2 도서관 후원기금의 실태
5.3 도서관 후원기금을 위한 전문가
5.4 도서관 후원기금 확보의 추진 과정
5.5 도서관 후원기금의 모금 방법
5.6 하버드대학의 The Wiedener Library
6. 결 론

초 록

도서관의 환경은 급변하는 사회의 환경에 비례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결국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도서관 서비스의 향상으로 귀착된다. 도서관 서비스의 향상은 자료의 다양화와 계속되는 새로운 과학기술과 장비의 발달로 인해 예산의 증액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한정된 예산 이외의 재원을 개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하며, 이의 해결방안은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후원, 기부제도가 생활화되지 못한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에게 맞는 도서관 재원확보방안을 위해 후원기금의 역사, 후원의 도서관 법적 배경, 실태, 후원기금의 확보과정과 특히 선진국에서 개발한 후원기금의 모금방법을 살펴보았다.

ABSTRACT

All the libraries are facing major financial problems due to a variety of reasons such as non growing or even decreasing appropriations from their administration, continuing inflationary increases for journal and library materials, needs for new or improved facilities, increased costs for new technologies and networks and more demands for services. To address these financial problems, library administrators need to find ways to supplement their budgets through existing as well as new creative external funding strategies including grants, fundraising, sponsorship, resource sharing, fees and others. This paper is drawing fundraising and sponsorship. But this financial aid is not an Aladin's lamp which, if rubbed three times, will give you three wishes and all the money you want. So this study is reviewed the history of fundraising, environmental situation in connecting with library law, status-quo, practical process for fundraising and existing sponsorship methods.

* 숭의여대 교수
접수일자 1999년 11월 30일

1. 서론

지금은 무국경의 경제전쟁의 시대이자 문화전쟁의 시대이다. 문화전쟁은 소리소문 없이 전쟁의 승자가 패자의 혼을 빼앗아 버린다는 점에서 군사전쟁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섭다. 개방화, 세계화라는 추세 속에서 현대사회가 가지고있는 특징은 앨빈 토플러가 말하는 '정보화 사회',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와 고도화에 따라 문화활동이 인간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되는 '문화중심사회'', 그리고 최근 모든 선진국에서 지향하는 '지식산업사회'로 축약된다. 문화중심사회의 출현은 제 4의 물결이라고 할만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문화예술활동이 경제적 효과를 낳기 때문에 한 국가의 경쟁력은 문화의 척도에 달렸다고 한다. 또한 국가의 확고한 지식기반시스템 없이는 국가경쟁력에 뒤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학습의 장소, 지식, 문화, 오락등 모든 마음의 양식을 제공하는 사회적 장치인 도서관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후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장치는 무한한 재원의 바탕 위에서만이 가능하다. 현대사회에서는 어느 나라도 국가의 예산만으로 사회적 장치가 발전하기 힘들다. 21세기 도서관은 과거처럼 수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제의 예산, 또는 학생의 등록금의 일부분을 예산으로 운영하기에 주변의 환경은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이의 한 방법은 도서관의 후원금, 기금을 위한 활동이다.

지난 10년 동안 학술잡지는 10-15%의 가격이 인상되어 도서관마다 학술지의 구독 중지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단행본 대 학술잡지의 비율이 50대 50에서 40대 60으로 변동되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20대 80으로까지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이 인터넷 환경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학술도서관이 이용자에게 향상된 자료제공서비스를 위한 자료의 비율도 엑서스: 학술잡지: 단행본의 비율이 30: 30: 40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도서관의 예산은 관종을 불문하고 변화된 환경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전자매체의 출현으로 도서관의 예산은 심리적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 IMF환경은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예산의 삭감, 원화가치의 하락과 계속되는 등록금 인상의 억제로 인해 특히 외국자료의 입수를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본 논문은 도서관재원의 확충방안으로서 적극적인 후원, 기부제도를 도서관 운영에 접목시켜 도서관 업무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세계적으로 자선사업이나 기부, 후원제도가 가장 잘 발달되어있는 곳은 미국이다. 미국의 도서관들은 그들의 서비스를 위해 후원기금이 예산의 일부분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을 정도이다. 물론 우리 특유의 문화적 토양이 미국과 많이 다르다. 미국 또한 이점에서 유럽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 사회환원 행위가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일상화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분야의 활동범위가 넓은 외국의 예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적절한 후원기금의 방안을 모색하여 도서관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2. 후원기금의 용어에 대한 개념

기업이나 개인, 공공기관이 재정적으로 학술,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형태는 후원(sponsorship)에서부터 시작하여 기금(fundraising), 증여, 협찬, 기부, 자선 등 매우 다양하다. 후원은 영국과 미국에서 business sponsorship으로 일반화되어있으며, 영국의 ABSA(Association for Business Sponsorship of the Art)는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재정지원을 "한 기업이 어떤 예술단체에게 그 기업의 이름과 제품 혹은 서비스를 홍보해줄 것을 분명한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금전을 지불하거나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출행위의 일부인데 여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수행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있다"[1]라고 기술하고 있다.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사회공헌활동(Philanthropic activity)의 일환으로 출발한 미국에서는 후원활동을 Business support to the art로 표기하고있으나 최근에는 이것이 기업의 예술투자(Business investion in the Art) 또는 기업의 문화예술연대(Business-Arts Alliance)로 통용되고 있다. 불란서에서는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Mecenat로 일반화되고 있으며, 우리나에서도 불란서의 개념을 빌어 1994년 한국메세나협의회를 설립하였다. 메세나는 로마제국시대 아우구스트(Augustus)황제의 대신인 Gaius Cilinius Maecenas(BC 70-AD8)가 당시의 유명한 시인 Horaz, Vergil, Properz를 지원하는데서 유래한다[2]. 메세나는 특히 문화, 예술가의 보호자 개념으로 주로 쓰이며, 후원자와의 차이는 대가성이 없는 자선행위이다. 기금(fundraising)은 보조금(grants)과도 거의 동의어로 쓰이나 보조금은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 기금은 특별한 규정, 제한, 한도에 따라 특수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정되고 독립된 재정회계의 실체를 이루는 자금 또는 기타 자원의 총계이다. 박철규는 "정부는 복잡다기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경제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특정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원활한 자금운영을 한다든지,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지 않는"[3] 재정지원을 기금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기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등 학술, 문화예술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할 의무를 가지고있는 기관들이 지원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의 기금은 공공기금보다도 기업이 사립(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재단을 운영하는 재원으로서 근본적으로 대기업의 지원, 후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였다.

증여는 개인, 기업, 회사나 재단 등이 간단한 감사의 말이나 프로그램에 감사의 표시정도를삽입하는 이외에 아무런 대가성이 없이 제공하는 일종의 선물과 같은 성격의 지원이며, 더 나아

1) 기업메세나지침서.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삼성문화재단. 서울. 1999. p.9
2) Bruhn,M. Sponsoring. Unternehmen als Maezene und Sponsoren. 2. Aufl. Ff. a. M. Wiesbaden. 1991. p.17
3) 박철규. 기금의 효율적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국방대학원. 1995. p.6

가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협찬(Patron)역시 후원과 거의 동의어로 쓰이며 이것은 이타적 성격을 갖는 지원이다. 협찬은 분명한 반대급부적 조건이 붙어있지는 않으나 증여와는 달리 어느 정도의 반사적 이득을 기대하는 지원이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협찬은 광고게재와 같은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현금이나 물품의 지원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이미지 제고와 상품판매증진등 마케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4]

위의 개념들은 본 논문에서 상세하게 구분된 개념으로 쓰이기보다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후원금이나 기금 또는 복합어인 후원기금의 의미로 일반화하여 사용되었다.

3. 후원기금의 발달과정

고대 로마시대에 메세나처럼 개인의 자선적 행위로 시작된 학술,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시대에 따라 주체가 변해왔다. 서구의 중세사회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교회에서 주도하였고, 근대에 와서는 귀족이었으며,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국가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브르주아다. 기업의 학술,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자본주의 국가의 표본이랄 수 있는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80년대부터는 유럽에서도 미국의 영향을 점차 받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후원제도의 역사는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미국에서 기부, 후원제도는 미국사회 특유의 아주 오랜 전통이다. 미국인은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재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American way of life로 인식하고있다. 미국의 자선사업은 자의로 기부, 봉사하고, 자의로 선행을 위해 단체를 결속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전통과 관습은 초기 식민지시대에서부터 시작됐다. M.C.Gurin과 J. Van Til[5]은 1601년 엘리자베스 시대의 Poor Laws"...England, mother to America and it institution, began to develop charitable trusts and endowments for schools, poor relief, and general civic purposes.... Parliament enacted the statute of charitable uses"를 자선활동, 봉사, 기부등 현대 후원제도의 초석으로 삼고있다. 자선가들은 모든 사회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복지, 문화에 대한 기부나 후원을 근본 취지로 삼고 그들의 활동 영역을 양육, 교육으로 넓혀 지원단체도 연방, 주의 병원, 사회복지시설, 박물관, 대학, 도서관에까지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오늘날 미국, 즉 당시 영국의 식민지에서 자선가들은 그들대로 정부의 힘을 가질 정도의 단체를 구성하여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단체로 발전시켜나갔다. 이러한

4) 용호성."문화예술단체가 기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메세나, 1999, 여름, p.33

5) Gurin, M.G. and Jon Van Til. "Understanding philantropy: fund-raising in perspective" Library development: a future imperative=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Vol. 12, Nr. 4, 1990. p.3

시민단체는 소위 제 3의 세력(Third Sector)으로 불리는 자선단체연합으로서 정치나 정부행정, 개인기업 분야에서 비영리단체로 활동했다. 이러한 비영리단체의 조직적인 활동분야의 첫 번째 영역은 교육 즉 대학설립을 위한 후원금이나 기금의 모집이었고, 그 대상은 Havard College of Course였다. Cultlip은 그의 저서에서 첫 후원기금 사업의 발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서술하고 있다.[6]

-1641년 Havard, Yale, William and Mary College는 주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았으며, Havard는 심지어 기금을 위해 복권사업에까지 지원을 요청했다.

-1739년 젊은 영국 설교자 George Whitefield는 전 미국을 여행하면서 속세의 죄에 대해 설교하고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을 쇼를 통해 보여줌으로서 기금을 모으고 또한 재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는 College에 지원했다.

-미국 정치가이자 작가이며 자연과학자, 미국 독립선언문의 저자, 미국 근대도서관의 발아인 회원제도서관의 설립자 벤자민 프랭크린은 각종 기금모금을 위한 호소문을 작성하여 후원자들을 위한 캠페인을 계획, 실행했다.

-19세기에 후원금은 주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가끔 대학 총장들이 직접 기금모금에 나서는 적극성을 보였다.

-여러 개인들이 모여 집단으로 기금모금활동을 한 것은 1829년 필라델피아에서 Mattew Carey가 "97 citizens of first responsbilty"라는 호소문을 통해서였다. 자유를 사랑하고 인간적인 삶의 보장을 위한 호소문에 서명을 한 사람들은 년간 특정 기금을 기부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현대적인 후원캠패인은 YMCA에서부터 발달했다.

-20세기 초반에는 Andrew Carnegie와 John D. Rockfeller가 미국 역사상 수많은 문화예술기관, 단체를 위해 초석을 다지는 거대한 기금을 내놓음으로서 미국사회 자선활동에 획을 그었다. 이것은 19세기까지 문화의 후원자인 왕이나 성직자가 그들의 자리를 기업가, 자본가에게 물려주는 전환점이 되었다.

-카네기 정신으로 비롯된 미국식 재산의 사회환원의 전통은 포드재단의 설립으로 계승되었다. 이들 기업인들의 행위는 자본주의의 야수(野獸)성을 베품, 나눔으로 치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베품, 나눔은 막대한 부를 상속하는데 따른 세금회피의 수단이라고 비판하는 일부의 주장도 있지만 이들 비영리재단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미친 영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가의 도덕성을 정착시켰다는데 있다.

20세기 미국 교육을 위한 후원회의 발달은 하버드대학의 3가지 캠페인을 통해 볼 수 있다[7].

-1904/5년의 William Lawrence주교의 주도하에 대학직원들의 봉급을 올려주기 위해 250만 달러를 후원 받았고

-1919/20년 John Price Jones관장 하에 Havard Endowment Fund Campaign을 통해 약 1400만 달러의 기금을 달성했고

6) Cultlip, Scott M. Fund-Raising in the United States: its role in Americas History.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 1990. p. 3
7) Cultlip, ibid p. 480

-1956/60년의 Robert F. Duncan주도하에 여러 해에 걸쳐 계획된 캠페인에서 8200만 달러의 거대한 기금을 달성했다. 이러한 기금의 모금에는 이를 위해 한때 71명의 인원이 근무할 정도였다.

1950년과 60년대에는 미국인들이 종교, 교육, 보건과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액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동안 개인의 소득이나 GNP는 77-78% 증가한 반면 종교단체, 교육, 건강,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기금은 100%향상됐다. 또 American Association of Fundraising Counsels/ Trust for Philanthropy의 출판물인 Giving USA에 의하면 사회 전 분야에서 각계층이 모금한 금액은 1964년에는 140억불이상, 1987년에는 930억불이상에 달했고 1988년에는 1040억불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후부터 점점 증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1986년부터 기금이나 후원금에 대한 조세의 감면혜택이 줄어든 조세개혁제도의 시행에서 부분적인 원인을 찾고 있다[8].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재단은 64억불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Ford재단이다. 이 재단은 217백만 달러규모의 기금을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34억불로 유지되는 Pen Charitable Trust이며, 이 재단의 기부규모는 137백만 달러이다. MacAther재단은 32억달러의 자산과 118.6백만 달러의 기부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1989년에는 Howard Hughes Medical Institut가 64억달러의 재원으로 설립되었다[9]. 1997년 한해동안 미국 40대 자선가가 기부한 금액은 CNN창립자 레드 터너의 10억달러를 포함 모두 35억 달러에 이르고, 세계의 두 번째 거부인 MS사 컴퓨터 황제 Bill Gates도 그의 재산중 1,000만달러만 자식에게 남기고 모두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도서관재단의 설립을 천명한 바 있다[10].

우리 나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그 역사가 다음과 같이 매우 짧다[11]. 그 효시는 1939년 삼양사가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양영회이다. 일제 식민지치하의 암울한 상황에서 나라를 되찾고 민족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인재양성과 민족자본 형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 창업자 수당 김연수(秀堂 金季洙) 선생은 기금을 출연해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유학경비를 지원했다. 그후 39년에 경방 육영회(京 育英會)와 55년 율촌 장학회(주 농심)가 설립되어 기업재단은 주로 장학지원활동을 했다. 순수한 문화예술활동, 개인의 메세나운동의 효시는 판소리 다섯 마당을 정리한 신효재와 한국최초 개인 박물관을 세운 간송 전형필이다. 이들은 근세 대표적인 문화예술 지원자로 꼽을 수 있다. 기업이 최초로 순수한 문화예술활동을 시작한 것은 1965년에 삼성문화재단(1977년 삼성미술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부터이다. 그후 같은 해 성곡언론문화재단과 1969년 LG연암문화재단이 설립되었고 우리 나라 기업들의 문화재

8) Cultlip, cit. op, p. 477
9) Grants Magazine, Vol2. Nr. 3. Sep. 1989. p. 130
10) Busch, Rolf. "Sponsoring fur Bibliotheken? Sponsoring fur Bibliotheken!" Sponsoring fur Bibliotheken. Hrsg. v. Rolf Busch. Berlin. DBL. 1997. (dbi-Materialien, 164) p. 9
11) 이선실,"기업과 문화예술의 연대, 그 뿌리를 캔다". 메세나, 1999. 봄. p.19

단의 설립이 본격화된 것은 경제성장이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70년대이다. 1973년 대상문화재단, 1977년 금호문화재단, 78년 대우재단과 연강재단, 1982년 에스콰이어문화재단[12]등 수많은 문화재단이 설립되었으나 대부분이 장학이나 학술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순수문화예술사업을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기업의 문화재단은 20여개이다.

1994년 우리 나 기업의 본격적인 문화예술과의 연대를 이루기 위해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가 설립되었다. 년간 매출액 1,000천억 이상의 중소기업, 3,000억까지의 대기업과 그 이상의 거대기업은 약 2570사이나 메세나협의회의 회원수는 161개사이다[13].

4. 후원기금의 목적

1) 기부자의 측면

현대사회에서 문화 즉 개인예술가, 예술분야의 그룹, 문화기관, 문화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의 기부는 기부자의 측면에 서보면 기업의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얻게되고, 반면 수혜자의 측면에 서보면 부수적인 재정을 확보하게되어 양측 모두 상호보완적 필요성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의 예산은 IMF로 인해 격감된 결과 그들의 업무개선이나 개발은 고사하고 존립자체에 위협을 느낄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 후원은 사회문화의 장치인 도서관이 그들의 업무를 원할 히 수행할 수 있는 윤활유가 된다. 물론 이러한 지원이 국가가 문화에 대한 공공의 예산을 소홀히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의 경우 문화재정의 확보는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이나 정부 혼자서 이행해야할 성격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나라 경우 국가의 문화예산에 대한 민간부분의 역할과 몫이 미약하기 때문에 자연히 국가의 예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각종 문화예술단체와 예술가에 지원된 총재원의 약 3분의 2는 개인이, 나머지 3분의 1은 연방정부, 주정부, 기업과 재단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이중 기업의 직접지원금은 전체예산의 10%를 점하고 있고, 이 액수는 연방정부의 국립문화예술기금의 지원 금보다 4% 많은 액수이다[14].

193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는 기업이 문화예술분야에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원활동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있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또는 선량한 기업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점차 이러한 지원은 기업자체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브랜드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제고하는 새로운 시장과 고객을 확보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진전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의 경영기반이 되는 사회가치를 증진하는 문화예술의 발전이 장기적이고 우회적으로는 결국 기업의 경영에 플러스가 된다고 해서 일본 교토대 아케가미준 교수는 기업이 비영리조직의 각종 학술, 문화활동

12) 재단법인 에스콰이어 문화재단. 서울. p. 5
13) "회원사" 메세나. 1998. 가을. p.42
14) 문화재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서울. 1989 (문화예술총서, 11) p. 7

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공헌이 아닌 사회투자"[15] 라고 강조한바 있다. 이렇듯 문화에 대한 기업지원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16].

a. 기업의 이미지 제고: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다. 기업은 그들이 목표로 하는 고객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거나 긍정적 태도나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문화활동을 지원한다.

b. 마케팅전략: 기업이 문화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특정 문화단체를 선호하는 고객, 즉 잠재고 객에게 접근할 수 있다.

c. 지역사회와의 유대: 기업은 기부를 통해 사회적 특정 책임에 참여하여 일반시민의 신뢰를 얻게된다. 이러한 선행의 창조(creat of goodwill)는 기업과 소비자와의 관계 개선이라는 심리적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 기업은 그가 존립하는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선린관계를 구축하고 문화계의 지도자들과 유대관계를 증진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d. 세제혜택: 많은 나라에서 개인, 기업의 후원금을 유도하는 세제상의 혜택을 다각적으로 마련해놓고 있다. 기업들은 그들 수입의 10%까지 공익을 위한 기금으로서 세금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이나 기업이 설립한 재단은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도덕적, 윤리적 책임과 더불어 자본세, 자산이전세, 증여세, 상속세등에서 세제의 혜택을 받게된다.

2)수혜자의 측면

기업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문화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면 수혜단체는 기업의 목표에 부응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한다. 기업들은 단순히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금전적 환가 가치를 기대하고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업이 제시하는 혜택의 상당부분은 수혜단체가 처해있는 위치와 지원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지원기업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수혜단체의 이용자나 임직원들에게 수용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수혜단체가 지원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17] 있으며 이것은 대부분 도서관에도 적용될 수 있다.

a. 일반 이용자(사용자)에게 배포되는 홍보자료: 지원 받는 행사나 프로젝트의 홍보자료에 지원기업에 대한 홍보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은 매우 일반화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보통 지원기업의 로고와 더불어 '이 행사는 OOO기업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라는 감사의 인사 등이 들어간다. 이 외에도 대중에게 배포되는 자료, 예를 들면 포스터, 전단, 브로슈어, 광고용 인쇄물, 등 각종의 인쇄물에 지원기업을 명시한다.

b. 프로그램에 의한 감사표시: 지원기업에게 해당 수혜단체가 계획하고 있는 행사프로그램에 지원기업의 로고를 눈에 잘 띄는

15) 이화순 "문화예술지원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 찾아야" 메세나, 1998. 여름. p. 33
16) 기업메세나지침서...op.cit. .p. 10-15
17) 기업메세나지침서, op. cit. p. 34-37

곳에 실어주겠다는 약속이나 또는 '이 행사는 OOO기업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감사의 글을 게제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다.

c. 구두로 하는 감사표시: 구두로 지원기업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행사의 개막식 순서에 지원기업을 소개함으로서 이루어진다.

d. 프로그램에 광고게제: 지원기업은 수혜단체로부터 프로그램에 그 회사의 광고를 실어주겠다는 제의를 받는다. 그러한 광고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광고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또는 광고면을 특별히 마련하기도 한다. 특별한 광고제작인 경우에는 지원기업에서 자사의 광고원고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 상례이다.

e. 전시공간대여: 만약 도서관이 전시를 할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면 지원기업으로하여금 거부감을 갖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다.

f. 언론보도: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 확언을 해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대해 최대의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는 것과 언론기관들이 반드시 보도를 해 줄 것이라는데 대해 확신을 보여주어야 하고, 또한 보도가 되도록 언론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갖겠다는 의지를표시해야 한다.

g. 내구성 홍보물품: 홍보의 효과가 더 오래 가는 방법으로는 머그잔, T셔츠, 달력 등에 지원기업의 제품브랜드를 인쇄하여 배포하는 아이디어는 지원기업간의 관계를 반영구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5. 도서관과 후원기금

5.1 도서관법과 후원기금

5.1.1 후원기금의 도서관법적 국제 환경

1650년 Boston에 Robert Keayne의 유산을 초석으로 하여 세워진 최초의 공공도서관은[18] 일찍이 공공도서관이 잘 발달된 미국에서 처음부터 공공도서관의 설립, 운영에 민간자금 유입의 길을 터놓은 셈이다. 1849년 미국 최초의 공공도서관에 관한 주법을 통과시킨 뉴햄프셔주의 '공공도서관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공도서관의 설립, 운영에서 공공자금인 세금 이외에 개인이나 단체의 후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됨으로 인해 그후에 제정된 각 주의 공공도서관법은 거의 위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근대 미국 공공도서관의 출발로 보는 1854년의 보스톤공공도서관의 설립에서는 공공의 재원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서 공공도서관의 공공성을 강조하였다[19]. 한편 1850년 최초의 영국공공도서관법(British Public Library Act)에서는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들은 개인의 기증, 기부금 또는 자선기부

18) Burlingame, D.F. "Public Libraries and Fundraising". Library Journal. 1990. Jul .p. 52

19) 이두영 [외],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0. p. 13

금에 의존하지 않고 공공의 재원인 세금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 이 법은 유럽 공공도서관의 모델이 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아직까지도 유럽과 미국의 도서관 후원활동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실업이나 공황은 일시적 현상에 지나지 않고 경제의 자율적 작용으로 불황과 실업현상이 해소되면서 완전고용상태가 될 것이라는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이론이 퇴색되었다. 반면 1930년 경제 대공황을 통해 케인즈의 경제학 이론이 확산되었다. 케인즈는 이전의 자유방임주의 대신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간섭을 지지함으로서 수정자본주의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또한 조세에 의한 소득평등화 원칙과 완전고용정책을 통해 복지국가의 한 방식을 제안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서 사회복지시설에 국가의 공공자금이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 운영에서도 역시 공공재원이 강조됨은 당연한 논리였다. 그리하여 이후에 미국도서관협회가 출간한 1943년의 도서관학 용어집이나 1949년 유네스코의 '유네스코 공공도서관선언'에서 공공도서관은 전적으로 또는 주로 공공자금에 의해 운영된다고 밝힘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재원에 공공의 자금을 강조하였지만 반면에 민간의 참여도 열어두었다[21]. 그러나 1955년 유네스코가 추최한 공공도서관세미나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재원에 특히 공공자금의 중요성을 강조됐다. 이점은 국가재정이 빈약한 아시아의 여러 개발도상국에서는 민간의 참여는 고사하고 공공의 지원조차도 미진하였기 때문으로 보고있다[22]. 1968-1969년에 각국의 공공도서관법의 복잡성과 다양성의 범위를 고려하여 유네스코에서 공공도서관의 지침서가 될 수 있는 공공도서관법률 비교연구(Public Library Legistration: a comparative study)가 Frank Gardner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 연구에서 도서관은 자본지출을 위해 자금을 모금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적극적인 민간재원 유입의 통로를 마련하였다[23]. 1973년 국제도서관연맹 공공도서관부는 유네스코 공공도서관선언을 기초로 하여 만든 공공도서관기준에서 공공도서관의 재정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충당할 것과,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강조함으로서 공공자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선언 역시 민간자원의 참여가 거의 없고 또한 중앙정부의 재원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배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70년대부터 2차례의 석유파동과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자유방임주의 정책대신 국가경영에 국가주도의 공공재원의 투입을 주장했던 케인즈 경제학파가 퇴조하고 자유시장경제 지향의 새로운 경제정책에 따라 공공도서관에 대한 공적재원이 감소되었다. 이와 동시에 도서관의 환경에도 변화가 왔다. 도서관에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도서관의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고 이용자 요구 또한 높아져갔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도서관의 운영을 국가의 재원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인식

20) 캠벌리, 헨리 시 공공도서관 개발론. 이병목 옮김. 서울, 구미무역. 1985. p. 49
21) 서혜란. 공공도서관의 재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 10-11
22) 서혜란. op. cit. p. 12
23) 캠벌리. op.cit. p. 50-51

아래 새로운 탈출구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해답은 역시 적극적인 민간재원의 참여였다. 그 결과 1983년 ALA에서 발간된 용어집과 1986년 국제도서관연맹의 공공도서관 지침서에는 공공도서관의 재정에 대해 민간으로부터의 기부금을 언급함으로서 민간 자본의 참여를 완전히 개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각국의 공공도서관 운영에 하나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준 것으로 해석된다[24]. 물론 이 내용은 민간의 참여가 거의 없고 또 아직까지 공공도서관이 잘 발달되지 않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는 큰 의미가 없는 선진국 중심의 사고라고 볼 수 있지만, 그보다도 후원문화가 생활화되어 있는 미국식 사고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재정은 공적자금인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영국이나 독일에서도 80년대와 90년대에 와서야 이러한 사고의 틀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여 이 분야에 다수의 논문들이 발표되면서 연구에 적극성을 띄게 되었다.

5.1.2 한국도서관법과 후원기금

한국의 개화사상을 집대성한 명저이며 한국 최초의 서양 사정을 소개한 책인 유길준의 서유견문(1895)에서 서적고란 표현으로 서양의 근대적 도서관이 우리에게 소개되었다. 이 책에서 "도서관은 정부가 설립한 것도 있고, 정부와 국민들이 협력하여 세운 것도 있다"[25]라고 도서관을 소개함으로서 도서관의 재정은 국민의 세금뿐만 아니라 민간의 지원도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한국보다 먼저 개화한 일본은 한일수호조약 체결 후 한국에 그들의 자녀교육과 복지를 위해 소규모 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 독서구락부나 신문종람소를 설치하여 우리에게 서양의 도서관상을 소개하였다. 광무 1년(1897) 부산독서구락부를 시작으로 1902년에 는 강경문고, 1909년에 경성문고등 이 뒤따랐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근대식 도서관의 설립은 그 목적이 어떻든 간에 민족적 자각을 지닌 유지들에게 민족계몽의 불을 지피게 하였다. 이를 계기로 민족도서관운동이 시작되어 1906년 평양의 대동도서관, 경성(서울)의 대한도서관, 서적종람소, 동지문관등이 설립되었거나 또는 설립이 시도되었다. 한국 최초의 근대적 사립공공도서관인 대동서관은 평양의 유지인 秦文王, 郭龍舜, 金興淵등이 주동이 되어 설립자금 8,000圓으로 당시 서북지방의 신문화운동의 중심지인 평양의 종로에 설립되었다[26]. 또한 우리 나 최초의 국립도서관의 성격을 띤 대한도서관은 이범구, 이근상, 박용화, 민형식, 윤치호등의 유지들이 발기하여 도서관 설립을 위한 평의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을 추진하여 10여만 권의 서적까지 수집하였으나 결국 조선총독부에 몰수되었다. 이렇듯 우리 나라 도서관의 재정적 기초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개인의 자금과 기증에 의존하였다. 총독부에서 직접 설립한 관립도서관인 철도도서관과 조선총독부도서관을 제외하고는 공립, 사립 도서관의 재정은 빈약하여 향교재산, 개인의 기부금, 그 외 기타 단체의 후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은 해방이 될 때까지 계

24) 서혜란, op cit. p. 16-17.
25) 세계도서관사상사. 박상균 편저. 서울. 민족문화사.1991. p. 252
26) 세계도서관사상사. op.cit. p. 290

속되었다. 해방 후 1947년 제1차 전국도서관총회에서 조선도서관협회가 결성되어 도서관 질의 향상과 도서관 증설을 위한 1군(郡)1도서관 운동이 있었지만 해방과 6.25동란의 사회 정치적 상황은 도서관에 신경을 쓸 여유를 갖지 못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부터 1963년 우리나리 최초의 도서관법이 제정되기까지 우리의 도서관정책은 체계적으로 추진되기에는 주변 여건은 열악하였고 또한 도서관에 대한 인식 역시 미흡했다. 1963년 10월 28일 최초의 도서관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나 공공도서관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서 도서관의 재정문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출발하였다. 또한 우리의 최초 도서관법에는 도서관의 운영, 유지에 민간의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점은 1953년부터 70년대 초에까지 걸쳐 발표,공표된 국제도서관연맹의 공공도서관원칙이나 유네스코 주최의 유네스코 공공도서관선언에서 공공도서관의 지정을 공공의 재원인 세금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한데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도서관의 재정과 관련되어 민간의 기부금, 후원금이 언급된 것은 1970년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부가 추최한 제3차 공공도서관 세미나에서 '공공도서관 예산 확보책'[27]이라는 주제발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에서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재원을 위해서는 1963년의 도서관법을 개정하여 공공도서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제도를 의무화하여 확대 실시할 것과 국회의원이나 지방 상공인의 후원을 유도하여 민간자본의 유치하도록 촉구하였다. 1971년, 1973년, 1975년의 전국도서관대회에서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도서관 재정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논의는 되었지만 실현단계에 이르지는 못했고, 또한 1979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표한 한국도서관발전계획에서도 재정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1970년 이후 공공도서관의 재원 확보에 공공의 재원이외에 사회의 여러 재단과 개인의 후원금이나 기금이 실현성 있게 제시된 것은 '한국의 도서관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에 관한 연구'에서였다. 이 논문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재원 확보의 방안으로 국가의 공공재원 이외에 사회의 여러 재단이나 개인의 자발적 기증을 위해 정부의 협조를 제안하였다[28]. 80년대 들어와서는 1987년 당시 집권당인 민정당에서 당의 정책사업으로 '도서관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이것을 정당의 정책사업으로 확정함으로서 80년대는 구체적인 도서관 재정의 개선 방안이 강구되는 시기였다. 이 방안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가의 형편상 기업이나 민간 기부금, 독지가의 후원을 유치하기 위해 조세감면 규체법을 개정하여 세제혜택의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29]. 같은 해 문교부의 위촉으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한국도서관의 실태를 조사한 후 도서관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한 연구에서 위와 비슷한 방안이 제시되

27) 권재식. "공공도서관의 예산확보책", 도서관, 1970. 25(9).p. 21-25
28) 이봉순 [외]. 한국의 도서관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에 관한 연구. 창립 2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1979. p. 74
29) 민주정의당. 국책연구소. 교육문화분과위원회."도서관발전방안". 도협회보. 1987. 28(1). p. 3-20

었다[30]. 이러한 일련의 노력의 결과 최초의 도서관법 개정 법률이 1987년 11월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개정된 도서관법에서 재정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도서관진흥기금의 설치였다. 이 기금의 내용은[31] 1. 정부출연금,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기부금, 3. 기금의 운영에서 생기는 수익금이었다. 이 기금과 관련하여 제 12조2항에서 도서관에 기부한 금전 기타 재산에 관하여는 조세감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고 함으로서 개인이나 기업, 여러 재단의 기부를 유도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도서관정책의 담당 부서가 91년 문화부로 이관되면서 1987년의 개정된 도서관법은 폐지되고 도서관진흥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재 개정된 도서관진흥법에서는 재정문제에 관련하여 큰 변화는 없었다. 1993년 문화부가 문화체육부로 바뀌고 '93년을 '책의 해'로 정하여 도서관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그 중의 하나가 책의 해 조직위원회와 문화체육부에서 독서문화진흥법(안)의 제정을 시도하였다. 제정이 시도된 독서문화진흥법안의 취지나 시기는 적절하나 현행 도서관진흥법규와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에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국민독서진흥운동은 단순히 독서시설과 독서자료를 확보함으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양서를 확보하고, 독서욕구유발 및 독자개발과 계몽, 전문적 자료관리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도되어야 성공적일 수 있다는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발전위원회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출판계에서는 도서관진흥법이 있지만 문제가 많고 또 획기적인 독서진흥을 위해서는 '책의 해' 조직위원회의 독서진흥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 결국 1994년 도서관계와 출판계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탄생되었다. 그러나 윤영대는 진정으로 국민독서진흥과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있는 법이라도 철저히 이행될 수 있는 조치를 내려야 하며, 또한 미국의 도서관이 법제화된 후 획기적인 도서관이 발전된 사례를 들어 우리 도서관계에도 도서관에 수행 가능한 현실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도서관지원법의 제정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32]. 새로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도서관 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보면 제1장 제9조 1항의 도서관진흥기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바뀌었고, 기금의 내용에는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금' 한가지가 더 추가되었다[33]. 그러나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은 도서관인들의 성금, 도서관과 기업은행과의 협력으로 '독서가족통장' 보급 활성화를 통한 기금모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34] 1987년 도서관진흥기금이 설치된 이래 거의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기금으로 전락되어 1999년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폐지하기로 의결됐다[35]. 이 기금의 폐지는 도서

30) 한국교육개발원. 도서관 체제의 확립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同개발원. 1987. p. 194. 서혜란 p. 47 재인용
31) '도서관법개정법률안' 도협회보. Vol 25(1987) 9,10월 No.5. p. 33.
32) 윤영대. "국민독서진흥법 제정에 대한 새로운 견해" 도서관문화. 1993. 5,6. p. 2-3
33)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도서관문화. 제 35권 제 1호. 1994. 1.2호. p.26
34) 1999년도 일반사업계획(안). 제50차 정기총회자료. 1999. 한국도서관협회. p. 87
35) "도서관 및 독서기금 폐지", 도서관계. 1999.6. p. 9

관 발전이 더 퇴색되어 후퇴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도서관인들의 일관된 견해이다. 그러나 이 기금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는 조세감면혜택을 통해서 여전히 가능하다. 이처럼 도서관의 재정에 민간재원의 합류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는 또한 급박하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도서관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고, 무엇보다도 기부문화가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성숙한 시민들의 의식변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5.2 도서관 후원기금의 현황

미국

20세기 도서관분야에 가장 잘 알려진 기부가는 카네기와 록펠러다. 스코틀랜드 모직공의 아들로 태어나 전신전화국 우편배달부로 출발하여 산업주의의 쌀이라고 불리는 강철 왕이 된 카네기는 '부자로 죽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신조아래 1902년 워싱턴에 카네기 협회를 설립하였다. 이 협회 설립의 주목적은 공공도서관 설립의 지원이었으며, 그 결과 영국, 미국, 캐나다 등에 2,500개의 도서관을 기증하였다. 카네기가 그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을 선택한 동기는 "공공도서관이야말로 자기향상을 위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기관"[36]이라는 신념 때문이었다. 이 재단은 미국 학교도서관의 실태조사, 도서관학 강좌개설, 사서교사양성, Hampton Institute의 흑인을 위한 도서관학교, North Carolina대학 도서관학교, Chicago대학 도서관학교등 도서관학의 기반을 다지는데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37]. 록펠러는 사회의 지도자들이 물질적 복지에 상응하는 국민의 정신적인 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시급한 동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록펠러재단은 미국에서 과거 20년간 남부 여러 주의 학교도서관경영에 관한 실험적 연구, Columbia대학 도서관학교와 미국도서관협회 도서관교육국 등에 지원을 했다[38]. 카네기나 록펠러가 미국 공공도서관 설립에 공헌했다면 빌 케이츠는 이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기위해 도서관-학교인터넷망 구축을 위해 3억 달러를 기부했다. 도서관에 대한 미국 거부들의 대규모 기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문화시설로서의 이미지가 약하다. 이점은 도서관이 여러 가지 문화시설중 가장 적은 액수의 기부를 받는 기관으로 인식된 것에서도 나타난다. 1978년 미국에서 각 문화단체에 지원된 기부금은 박물관에 22%, 음악부문에 15%, 연극에 7%, 오페라 3%, 무용에 3%, 공영 TV.라디오에 19%, 문화센터에 9%, 기타 15%이고 도서관에는 단지 2%에 불과했다[39].

도서관이 문화시설로서 미약한 이미지를 가지면서도 사람들이 도서관을 후원하는 이유는 무었일까?. Wilkinson은 다음과 같이[40]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남에게 준다

36) 이용남. "공공도서관은 우리가 살려야 한다". 도서관문화. 1998. 11.12. p. 2
37) 세계도서관사상사. op. cit. p. 109-110
38) 세계도서관사상사. ibid. p. 110
39) 문화재원. op. cit. p. 281
40) Wilkinson, J." Library Fundraising techniques: a study based a tour of North American Libraries" British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Vo. 8. No. 3. 1993. p. 188

는 것, 사회에 무엇인가를 돌려준다는 것은 미국의 중요한 문화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 개인들의 도서관에 대한 기부는 보통 60세에서 90세에 이루어진다. 그들은 사회 공동 체의 한 시민으로서 선행(civic good)이라는 명확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들이 젊었 을 때 다녔던 대학이나 학술단체, 사회단체에 무엇인가 기부한다는 고귀한 정신이 기부를 하게되는 원동력이다. 직업상 도서관과도 특별한 관계를 갖지 않은 후원인들의 구체적 동기를 살펴보면

- 도서관은 무엇인가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는 믿음
- 도서관이라는 기부단체의 권위와 이러한 권위 있는 단체와 연계된다는 자부심
- 기부단체에 대한 충성심
- 명성에 대한 욕구와 개인적인 인지도(여러 행사를 통해 기부자의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
- 세제감면혜택
- 단순히 남에게 준다는 기쁨

미국에서는 일반인들은 선행을 위해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정신이 어릴 때부터 교육되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해서 기부행위에 대해 질문을 받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다. 근래에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은 유산상속이나 기증서약 등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탈세의 수단이라고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동기이든 자선행위는 미국사회에서 선량한 시민이라는 이름 아래 깊이 자리잡고 있고, 세제에 관한 우대는 사람들의 선행을 유도하는데 한 몫을 한다.

이러한 가진 자의 자선철학을 상징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1970년대 두 번의 석유파동으로 외부의 자금의 유입이 없이는 도서관에서 이용자의 요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질의 향상이 어렵게 됐다. 미국은 80년대부터 이러한 도서관 현장에서 기부, 후원금이 학계 토론의 주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그 뒤를 이어 영국은 1992년 Aslib에서 'Sponsorship in Libraries'를 출판으로, 독일에서는 도서관연구소(Deutsche Bibliotheksinstitut)를 중심으로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도서관 환경의 변화에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쪽은 ALA 도서관경영위원회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먼저 도서관 경영난의 타개책을 위해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소분과위원회(FRDS:Fundraising and Financial Development Section)를발족시켰다. 이 FRDS는 도서관 재정지원을 위해 새로운 강구책을 찾는 대화의 장이 되었다. FRDS는 도서관의 후원기금의 지원에 대한 아이디어나 정보, 재원조달의 기술, 도서관간의 프로젝트 수행시 필요한 지침서, 출판물 등을 지원하는 Clearinghouse로서 도서관 발전을 위해 일반예산 이외의 기금확보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관리하는 창구역할을 한다.

FRDS는 그들의 첫 사업으로 1985년 미국도서관의 후원기금 모금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Fichler와 Burlingame가 그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41]

41) Fichler, B. "Library Fund-Raising in the United States: a preliminary report". Library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Vol. 1. Nr. 1. 1987 p. 31-34
Burlingame, D. F. "Library Fund-Raising in the United States: a second look ". Library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Vol. 1. Nr. 3. 1987. p. 108-111

- 1600개의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y와 1150개의 대규모 공공도서관, 50개의 State Library Agency에 설문지를 돌려 1113건을 회수한 후 1061건을 최종 조사결과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비영리단체의 재원확보의 방법에서는 개인의 기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의 높은 교육수준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사립학술도서관이나 사립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은 그들 도서관 운영비중에서 후원금이 45.6%와 43.9%를 차지할 정도여서 정규예산 이외의 후원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평 가되었다.

- Library Friends 혹은Friends of Library Group같은 지원단체회원은 순수 사립도서관 보다 공공의 재원으로 유지되는 국립, 주립공공도서관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 응답 도서관의 90%이상은 재정후원활동이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매우 효율적인 기금마련 방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도서관 총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서관장이 후원활동에 큰 비중을 두었고, 도서관은 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후원금도 더 많았다는 일반론이 확인되었다.

1987/88년과 1990년에는 도서관 후원기금에 관해 서로 다른 규모의 연구조사가 실시됐다. 연구도서관협회(ARL: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의 Office of Management Services[42]는 1987년 모든 ARL회원도서관에 지난 3년간 기금 후원활동의 추진사항, 즉 기금모금활동의 목적, 기금의 규모, 모금활동의 성공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도서관의 3분의 2는 도서관에서 필요한 비품의 구입이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기금후원활동을 추진했고, 그 결과 대부분의 도서관은 성공적이었다고 응답했다. 응답 도서관 중 많은 금액을 후원 받은 도서관의 특징은 도서관의 발전과 기금모금사업의 협력을 위해 특별히 책임을 맡고 , 이 업무를 주도하는 전담 부서와 전담직원이 있었다는 점이다. 기금의 후원업무를 위한 전담은 주로 도서관장이나 혹은 대학의 학장이었다. 이 조사는 미국 학술도서관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나 이 결과를 통해 후원활동은 앞으로 학술도서관이 그들 재정난의 타개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이 외에도 1990년 ALA와 ACRL(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y)에서 800개의 대규모 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Anne Beaubien과 M.J. Lynch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하였다[43]. 먼저 이 조사는 도서관 일반예산 이외의 재원을 5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실시하였다. 그 5가지는 - 도서관봉사에 대한 요금과 특별행사를 통한 기금, - 전산화목록과 데이터베이스 검색 요금, - 연체료와 분실물 교체대금, - 기증과

42) Library Development and Fund Raising Capabilities=(Systems and Procedures Exchange Center) SPEC Kit Nr. 145, July/August 1988. p. 4-8 l l

43) Beaubien, A. and Mary J. Lynch. "Alternative sources of revenue" Academic Libraries in College and Research Librareis. Vol. 52. Nr. 9. 1991. p. 573-576

보조금, - 기부금이다. 응답대학의 64%는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요금과 도서관 특별행사를 통한 기금으로 10.000달러 이상을 모았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의 대부분은 도서관이 아닌 다른 부서나 또는 상위기관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검색이나 데이터베이스 검색에서 나온 수입도 대부분을 학술도서관에서 차지하지 못하고, 혹 차지한다 하더라도 년간 10.000달러 이하라고 응답했다. 연체료 역시 반 이상이 도서관에 돌아가지 못했고, 도서관 비품 교체대금만이 도서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다. 75%의 대학도서관들은 도서관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들중 약 3분의 1은 재단기금이 100만 달러 이상이었다. 그러나 절반정도의 도서관재단은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약 10.000달러 정도였다. 대학의 절반 이상은 1987년과 1990년 사이에 도서관운영을 위해 기금을 조달했고, 대부분의 학술기관들의 기금은 전체 운영비의 1-10%에 달했다.

위의 세 가지 조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집약할 수 있다. 1). 대부분의 학술도서관은 도서관 정규예산 이외의 재원으로 도서관 기금을 조성하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또는 스스로 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기금모금캠페인을 벌인다. 2). 사서나 도서관장은 이러한 기금모금활동을 그들 고유업무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한다. 3). 4분의 3의 도서관은 도서관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재단의 위상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4). 도서관기금의 주요 출처 원은 기증, 기부금, 후원금이었다. 위의 결과를 볼 때 도서관의 후원기금은 도서관의 운영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재원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Sul H. Lee는 평가하고 있다[44]. 이러한 관점에서 University Library in Houston의 도서관장이었던 Robin N. Downes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45].

- 도서관의 후원기금조성은 도서관 경영진에 의해 근본적인 도서관 업무로 간주하여 체계 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 만약 도서관 기금모금 캠페인이 수행되면 대학도서관과 대학이 동시에 같은 각도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 또한 기금모금활동이 도서관이 아니라 대학 위주의 상위기관에서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조성된 기금의 일부분은 도서관에 도입되어야 한다.

- 도서관이나 대학당국은 후원하는 단체나 기관, 개인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도서관발전위원(Library Development Officer)은 기금조성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서관의 예산에서 각출해야하며, 대학당국의 대학발전위원도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한다.

- 도서관후원회원(Library Friends)은 후원기금 조성에 관한 한 지금보다 더 적극성을 보여야한다.

위의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도서관 후원기금의 조성은 도서관이 살아남기 위한 방편일 뿐만 아니라 예산삭감에 대항하고 도서관의 중요

44) Library Fund-Raising: vital margin for excellence. ed. by Sul H. Lee. AAnn Arbor: Pierian Pr. 1984

45) Library Fund-Raising, op. cit. p. 44

성을 알리는 홍보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미국의 경제단체들을 자극하여 그들의 재정지원을 한층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ALA에서는 Ad Hoc Committee on the Organization of Business Council for Libraries를 조직했다. 이 위원회는 미국예술의 촉진을 위해 설립된 Business Council for Art의 성공적인 사례를 기초로 조직한 것이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위원회가 지원을 직접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도서관의 접목 역할을 담당하거나 또는 도서관 지원을 원하는 기업에 상담을 하거나 , 기업의 지원을 원하는 도서관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

한국

우리 나라 도서관에 대한 일반인이나 기업의 후원은 초기 일제시대에는 국민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형태는 주로 개인의 사재를 중심으로한 도서관 설립이었다. 그후 해방과 6.25동란의 격변기를 걸쳐 도서관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은 60년대 최초 도서관법의 탄생부터라고 볼 수 있다. 본격적인 경제성장기 이전에는 개인이나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은 매우 미약했다. 기업이 70년대 경제성장기에 들어서면서 기업의 사회복지, 교육, 문화분야에 그들의 사회공헌활동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유능한 기술인 양성만이 한국산업 발전의 지름길이라는 기아자동차(주) 창업주 김철호선생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1977년 학산기술장학재단이 설립되었고, 이 재단에서는 장학사업이외에 이공계 대학생 및 중화학공업계열에 종사하는 기술인 에게 최신 국내외 자료를 신속히 구입하여 이용토록 하는 목적으로 1978년에 학산기술도서관 설립되었다. 연건평 약 656평, 대지면적 418.6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도서관에 장서는 동서 3만 여권, 양서 2만 5철권, 학위논문 3만5천권, 학술잡지 200여종에 달하며, 연간 예산은 약 4억원에 달한다[46].

위의 재단과 비슷하게 장학재단으로 시작한 한국고등교육재단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순수사회과학, 인문과학 및 순수자연과학분야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대학 수준 이상의 고등교육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최종현 SK그룹회장이 1974년에 설립하였다. 이 재단은 장학사업 이외에 이 재단의 장학생, 대학교수, 석, 박사과정의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국내외 전문도서, 학술잡지, 연구기관 발간자료들의 학술자료와 해외 유명대학원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봉사하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이 재단의 장학생을 중심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향이었으나 지금은 대학원생 이상의 이용자에게 자료를 개방하고 있다. 초기에는 학술지가 650여종에 달했으나 현재는 약 200여종 정도로 축소되었고, 단행본은 3만 여권에 연간 운영비는 약 4억원이다[47].

위의 두 도서관이 장학재단의 설립을 시작으로 도서관을 구축한 것이라면 에스콰이어문화재단은 처음부터 한국사회과학도서관의 설립을 목적으로 1982년 출발한 문화재단이다. 재단 설립자 이인표회장은 평소 친분을 맺어오던 학자들로부터 사회과학분야의 자료에 관한 애로사항

46) 학산기술도서관 이용자 안내. p 2.
47) 기업사회공헌백서=Cooperate Community Relations White Book. 전국경제인연합회. 1998. p. 235-236

을 경청한 결과 한 분야의 자료만이라도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사회과학문헌정보센터를 마련하겠다는 신념으로 한국사회과학도서관을 설립했다. 도서관의 규모는 해외 학술잡지기사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포함하여 국내외 학술지가 2280종(800종의 전자저널 포함)에 달한다[48]. 이 재단에서는 한국사회과학도서관 이외에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주고자 하는 소박한 심정에서 1990년부터 인표어린이 도서관의 설립을 시작하여 현재 국내 14개와 주로 중국연변을 중심으로 해외에 8개에 이른다. 이 재단은 도서관 운영평가 우수도서관에 선정되어 1999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게된다[49].

90년대 들어 우리 나 도서관계의 신선한 충격은 재단법인 LG연암문화재단이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6년 개관한 우리 나 최초의 디지털도서관의 출현이다. LG그룹의 구자경 명예회장은 LG그룹이 화학, 전기전자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것은 동기로 이 분야의 국내 학문 및 기술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서관을 사저에 설립하여 재단의 설립취지인 인재육성과 과학기술진흥을 구현했다. 자료는 일반 학술도서관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학술저널, 국제학술회의자료, 유명학회 및 대학의 영상자료인 학술비디오, INSPEC, CCOD, EIEE-disc등의 CD-ROM, 학술회의개최예정정보, 학회정보등의 데이터베이스다[50]. 이 도서관의 특징은 수집자료를 자체적으로 디지털화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있으며, 현재 온라인으로 서비스되고있는 데이터의 논문도 90만 편에 달한다. 이용은 회원제로 무료이며, 회원은 주로 이공계통의 대학교수, 석, 박사과정 대학원생, 정부출연연구소 및 기업연구소 연구원 등이며 회원 수는 약 2만3300명이다.

위와 같이 기업의 재단이 운영하는 형태의 도서관 이외에 90년대 들어 대기업이 도서관에 지원한 대표적 사례로는 금성사와 삼성전자의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대한 지원이다. 1993년 금성사는 창립 35주년을 기념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정보화사회의 총아로 자리잡게될 첨단 멀티미디어시스템을 갖춘 약 300평 규모의 전자도서관을 설립하여 기증하였다. 그후 1996년부터 주식회사 LG전자는 전자도서관 시설일체를 대여형식으로 기증하고 있다. LG전자에서는 새로운 장비가 개발되면 장비의 update차원에서 장비를 교체해주고 있다. 삼성전자는 1994년 3월에 개관된 국회도서관의 107평 규모의 멀티미디어실에 약 3억5천만 원어치의 장비를 지원하였고, 1996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1층 정보봉사실에 국립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화 시설에 필요한 장비 약 26억원어치를 기증하였다[51]. 또 삼성전자는 한성대학교의 전자정보관의 설립에 전체 비용의 50%(약 10억원)를 1995년과 96년 2년에 걸쳐 지원하였다. 지원의 형태는 주로 최신 멀티미디어 장비였다[52].

이와 같이 우리 나라도 기업의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나 후원이 증가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일

48) 에스콰이어문화재단. p. 13
49) "이달의 소식. '98문화시설관리운영평가 우수도서관 인센티브 부여" 도서관계. 국립중앙도서관. 1999. 10. p. 8
50) LG상남도서관 설립 추진방향.
51) 국립중앙도서관 지원에 따른 인수확인서 협조의 건. 인수확인서.
52) 한성대학교 전자정보관 설립 Project에 관한 건.

반화되기는 요원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후원활동 이외에 개인 및 중소기업의 후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를 정비하고 또한 정부투자기관의 후원활동도 의무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53].

5.3 후원기금을 위한 전문가

기부나 후원의 시장은 한정되어 있다. 기업은 스스로 지원단체를 찾아서 지원하기보다는 수혜단체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후에 선별한다. 그러므로 기금모금은 고도의 사업수단을 요하는 하나의 사업이다[54]. 세상의 어떤 직종에서든 모든 사업은 사업을 운영하는 인력에 성패가 좌우된다. 도서관의 후원기금 모금 역시 적절한 행정감각과 개인과 개인간의 친화력을 잘 조절하는 사서에 달렸으며, 이것은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업무보다 더 중요하다고 Heery는 주장하고 있다[55].

이미 언급됐듯이 도서관은 일반적으로 다른 문화단체보다 기부의 대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Kuschke[56]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도서관은 일반 시민 에게 도서관의 고유 업무보다 우선 도서관의 위치, 허름한 장비, 공간, 인원부족, 부족한 예산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의 PR을 담당하는 책임자의 직업의식에도 문제가 깔려있다고 본다. 도서관 직원은 자신조차도 기부금을 받아들이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도서관이 기부금으로 인하여 도서관의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공의 예산이 삭감되어 결국 재정적으로 기부금에 예속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다. 또한 기업이 기부를 통해 도서관 업무내용에 영향을 미칠 위험에 대해서도 도서관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도서관은 기부의 동기는 수혜단체의 업무내용에 대한 간섭이 아니고 기부단체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라는 점을 미리 알려야 한다. 특히 도서관의 후원기금은 고정적 지원이 아니고 정규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업무나 그 외 서비스, 혁신적인 사업의 시작, 특별행사 등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지원, 즉 기존의 업무활동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존의 정규예산을 대치하거나 충당하지 않고 단지 기본예산의 극히 일부분을 보조하는 지원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의 지원을 받는 각종 학술, 문화단체는 지원금을 자체의 경상운영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상의 경상경비의 상당부분을 기업이나 개인의 지원금에만 의존하면 수혜단체의 약점이 노출되어 기업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지원을 철회할 수도 있고, 또한 더욱 더 위험한 것은 지원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큰 위기에 처할 수

53) 창의적 문화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제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p.129
54) Simon, Matthew. "Fundraising as a small business enterprise" The Botton Line: Managing Library Finance. Vol. 10. Nr. 3. 1997. p. 108
55) Heery, Mike. "Winning resources" Library Management. Vol. 19. Nr. 4. 1998. p. 252
56) Kuschke, I. Sponsoring von Bibliotheken- Konzeption und Realisierung. Diplomarbeit fur Studiengang Offentlicher Bibliothekswesen. Fachhochschule Koln- Fachbereich fur Bibliotheks-und Informationswesen. Koln. 1995. p. 13

있게된다. 도서관은 기업이나 개인이 그들을 지원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기업이 하는 자선사업이나 사회봉사와 개인이 하는 그것과는 부분적으로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월가의 황제 블룸버그는 강조했다. 그는 재산의 사회환원은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도 주주 이익에 배치되는 경영은 허용될 수 없고 허용돼서도 안 된다"[57]고 했다. 즉 기업은 그들이 책임을 져야할 대상은 주주, 고객과 직원들이다. 기업이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회사의 경영정책과 영업방침에 따른 사적인 결정인 것이다.

모든 도서관이 그들의 특정 프로젝트나 서비스를 위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는 없다. 도서관마다 여건에 따라 후원의 규모도 다르다. 이 분야에 좋은 아이디어로 적극성을 보이는 도서관은 많은 후원자를 확보한다. 그러나 모든 도서관에 후원제도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이든 지원자를 찾는 일은 일종의 투자라고 보아야한다. 다른 모든 투자처럼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지출과 위험이 따르는 것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고, 또는 실질적 이득도 양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지원기업이 확정되었다면 수혜단체는 지원기업에게 제공되는 혜택들을 종합하고 제시하기까지는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로 일단 지원자를 확보했다해도 그 기업이나 개인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앞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요구되는 인력이나 소모시간의 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도서관의 후원회원(Library Friend Group) 1.000명을 관리하는데는 상주직원 1명이 필요하다[58]. 한 예로 미국에서 후원기금으로 운영 유지되는 대표적 공공도서관인 New York Public Library (NYPL)를 보자[59]. Public이란 수식어에 따르면 공립단체처럼 보이지만 그 명칭과는 달리 NYPL은 사립단체(Private Institution)이다. 약 100년전 개인의 자선으로 설립되었고 현재는 The Private Board of Trust에 의해 운영된다. NYPL의 85분관(Branch Libraries)들은 거의 다른 공공도서관들처럼 시와 연방의 예산, 기금으로 유지되고, 그 외 후원금은 도서관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 쓰이고 있다. 반면 NYPL의 4개의 학술도서관[60](Center for the Humanities; The New York Public Library for the Performing Arts; Schomburg Center for Research in Black Culture; The Science, Industry and Business Library)들은 그들의 예산을 거의 개인들의 후원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의 공공도서관 후원제도는 매우 직업적이다. 대규모 공공도서관은 성공적인 후원기금의 모금을 위해 스폰서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부서가 따로 있다. NYPL은 1999년까지 40명의 후원회활동 담당직원이 43억불을 후원 받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57) '재산 사회환원' 유언장: 블룸버그 스토리, 매일경제, 1999. 6.25. 1면.
58) Wilkinson. op. cit. p. 185
59) Wilkinson. op. cit. p. 179
60) Altrichter, Helmut. New York Public Library(NYPL) "Elektronische Bibliotheken in den USA". Berlin. DBI. 1999. (dbi-materialien, 188). p. 120

있고, 이외에도 수많은 명예회원직인 Helper들이 후원활동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후원기금을 위해 지원기업을 성공적으로 찾으려면 우선 적절한 인력이 적정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도서관에서는 스폰서링을 위해 이를 전담하는 책임자에게 직책을 부여하되 가능한 한 도서관을 대표할 수 있는 높은 위치의 직함을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도서관의 후원사업 책임자는 절대로 구걸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는 본인이 무었을 위하여,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지 분명하고 확신에 찬 자아의식과 신념을 가지고 후원자와의 교류를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후원사업의 업무상 이 업무에 적합하고 특성 있는 인격체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해서는 도서관교육에서 이러한 주제가 당연히 다루어져야한다[61].

후원자를 찾는데는 물론 후원자에게 접근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지만 거의 모든 나라에서 후원자와의 접촉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서관은 기업이나 행정기관, 정치가들과 접촉하는데 있어서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도 갖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인적 교류의 부족을 도서관에서 후원자를 찾는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점은 사서들이 정치적으로 수동적인 존재로 머물고있음을 뜻한다. 21세기에는 사서들도 이러한 수동적 태도에서 탈피하여 정치적 역할을 증대시키는 로비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사서들의 로비활동은 여러 채널을 통한 인적교류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사서들은 로비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명사나 기업인과 폭넓은 지역사회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사서들의 로비활동의 결실을 최용관은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62].

- 도서관 기금의 증대
- 적절한 시기에 의사결정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부여
- 필요한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호적인 세력의 확보
- 아무 문제가 없을 때라도 로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미래에 대한 투자일 수 도 있다 도서관 경영에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로비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가능하므로 사서들도 이제 로비를 무관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가지고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후원기금을 책임지고 있는 사서는 지원기업 내부구조의 상황을 파악하여 영향력 있는 적임자와의 교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계출신의 임원을 도서관의 후원회의 책임자로 선정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재계출신의 회원은 출신기업과의 교섭을 주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의 적정한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할 수도 있다. 또한 기업의 핵심인사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닫혀진 문을 열고,

61) Keite, Uta. Literatursponsoring - Realitat oder Utopie fur Offentliche Bibliotheken? "Sponsoring fur Bibliotheken"hrsg. von Rolf Busch. Berlin. DBI. 1997. (dbi-materialien. 164) p. 93

62) 최용관. "도서관 재정 확충을 위한 기금조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제 30권 제 1호. 1999. 3. p. 214

담당자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문제 해결에 열쇠가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도서관에서 이러한 인력의 확보는 가능하다면 도서관의 명예회원제도를 통해 명예회원으로 추대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이다. 일단 후원업무의 담당자가 결정되면 반드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또 조직 전체를 위해 해야할 일과 하지말아야할 일들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규모가 큰 도서관에서는 모금담당자와 각 부서의 장, 그리고 그 조직의 최고경영자간에 결재와 보고체계는 반드시 세워두어야 한다.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서 후원사업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전담소위원회와 같은 임시기구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기구는 기존 책임자 중에서 한사람이 의장을 맡고, 위원들은 지원을 해줄 기업의 문을 열 수 있는 기금모금의 목적에 적합한 사람들 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적정한 인력선발이 쉽고 각자에게 적절한 동기 를 부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지향적이면서도 한시적인 기구로 구성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조직이 수행해야 할 과업의 선택은 당연히 도서관의 규모에 달려있다.

전담소위원회의 방법이외에도 후원사업을 위해서는 Director of Development나 Library Development Officer 혹 은 Library Development Associate라는 직함으로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63]. 이들은 full-time member로서 명칭에서처럼 도서관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장만하는데 전력을 해야한다. 도서관에 따라서는 이러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서관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심지어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비사서직을 고용할 수도 있다.

63) Wilkinson, op. cit. p. 182

위의 여러 가지 방법들 이외에 흔히 도서관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전문사서직중에서 후원업무의 책임자를 임명한다. 이렇게 도서관 전문사서에게 이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후원자에게 도서관의 중요성, 그들의 사업, 역할등을 설명하고 재원의 필요성과 동시에 후원사업의 동기를 설명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흔히 도서관에 기부하거나 후원하는 사람의 약 50%이상이 도서관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다.

기부, 후원활동은 장기적이고 인내와 시간을 요하는 업무이다. 도서관의 기부활동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와 목적은 도서관 전 직원, 도서관 관리자와 후원활동의 책임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부를 하려는 즉 잠재적 후원자에게도 중요하다. 기부를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도서관의 기본적 서비스는 지속되어야 한다. 즉 기부 여하를 핑계로 도서관의 본질적인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5.4 도서관 후원기금 확보의 추진과정

도서관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 업무를 위한 조건은 전문인력의 확보다. 우리 나 서구사회처럼 자원봉사활동을 시민의 당연한 의무처럼 생각하는 중산층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개인들의 기부금 등도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도서관에 대한 기부는 다른 예술, 스포츠 등과 같이 시청각적인 효과가 있는 이벤트성의 행사도 아니기 때문에 재정지원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근래 우리 나 노인 층과 젊은 층의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각각

4%와 10%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훨씬 높아졌고, 젊은 층으로 갈수록 이 수치는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유산안물려주기운동'을 위한 시민단체가 생겨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까지 일반시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로 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 후원자를 찾아 기금을 마련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7단계로 나눌 수 있다[64].

1단계: 도서관 현재의 상황분석

후원사업이 계획되기 이전에 먼저 도서관에서 해야할 일은 이 업무의 책임자가 도서관 전 직원에게 후원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전 직원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 로 임해야 한다. 후원금에 대한 도서관직원들의 긍정적 사고를 위해서 도서관은 도서관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분석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상황분석의 목적은 후원기금의 목적과 기금의 용도가 직결되기 때문이다. 즉 도서관의 업무중에서 어떤 분야에 특별재원이 필요하며, 재원이 투입된 후에는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단계: 자체능력에 대한 평가

후원금을 요청할 때 도서관은 그들이 처해있는 상환을 객관적으로 알려야 한다. 여기에서는 도서관이 사회적 장치로서 그 중요성, 즉 도서관의 의미와 위치, 급변하는 사회에서 그 역할 등 일반인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하며, 더불어 미래에 대한 계획, 후원금을 받은 후에 변화되는 사항들도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이러한 도서관에 대한 압축된 프로필을 통해 후원자들은 그들이 속해있는 사회공동체에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된다. 이는 또한 잠재후원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효과도 갖는다. 도서관이 후원금의 필요성에 대해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기금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사용할 곳인가에 대한 계획이 미리 서 있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후원은 후원기금이 없으면 수행될 수 없는 도서관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 만약 지원자가 기업일 경우에는 지원기업에 대한 혜택에 관해서도 면밀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한다.

3단계: 제안서 작성

일반 기업이 예술단체에 후원을 할 때는 지원하는 단체보다 수혜단체에서 제시하는 사업계획이나 프로그램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되지만 도서관의 경우 홍보성이 강한 시청각예술을 제공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어들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제안서에는 보다 더 세심한 배려를 하여 명쾌한 사업계획서와 기금의 운영내역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안서에는 특히 지원단체가 대기업일 경우에는 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이고, 그 평가액은

64) a). Hunt, Gary A. and Hwa-Wei Lee. "Ten principles for successful fundraising" Sponsoring fur Bibliotheken. Hrsg. v. Rolf Busch. Berlin. DBI. (dbi-materialien, 164) p. 130-142.
b). Hannah, Kathryn Covier. "Alternative funding for libraries: a plan for success" The Bottom Line Managing Library Financees, Vol. 10. Nr. 4. 1997. p. 169-173
c). 기업메세나지침서. op. cit. p. 20-69

얼마나 되는가를 대략 제시할 수 있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이러한 혜택을 위해 도서관은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약속하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이외에도 제안서에는 도서관이 현재 지원을 받고있는 후원단체나 개인 후원자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 것은 도서관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재단이나 저명인사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지원을 해주었던 내용도 중요하다. 기업이나 재단에서는 하루에도 몇 건씩의 지원요청을 받을 수 있다. 지원요청서가 너무 자세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서는 짧은 시간에 지원요청 단체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적당해야 한다. 내용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된 훌륭한 제안서는 A4용지 2페이지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안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앞으로 지원단체 담당자들과 만나서 상담할 내용을 미리 정해두기 위해서이다.

4. 단계: 지원자를 찾는 작업

일반시민들의 자선활동의 증가는 인류사회의 공통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우리 나에서 최근 들어 '유산안물려주기운동'이 시작되고, 또 젊은 층에서는 과거보다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오고있지만 아직도 자선 활동은 서구사회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에 머물어 있다. 미국에서는 문화활동에 지원되는 총 금액의 3분의 2를 개인 기부금이나 헌납이 차지한다. 한 관광객이 박물관을 나오면서 기증상자에 75센트를 던지거나, 박물관 관리인이 임종에 2.500만 달러를 박물관에 유산으로 남기는 등의 경우가 다 개인의 기부금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자선행위는 개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삶의 가치관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대기업이 유지하는 재단의 기금이나 중소기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도서관은 지원해 줄 기업을 찾아야한다. 수혜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무용단체라면 신발제조회사나 판매회사를 찾아볼 수 있고, 도서관은 도서관과 관련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며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작용할 수 있다.

서구사회와는 달리 우리 나라는 기업협찬금이라는 것이 상당부분 수혜단체와 기업체 대표간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통해서 성사되고, 많은 협찬금이 자사의 선전효과등 영업적인 차원에서 투자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인간적인 친분관계와 신뢰감의 형성, 지연, 동문관계 등을 통한 기업과의 관계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특수관계에만 의존하게되면 재원조달의 출처를 극히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기업선정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먼저 도서관은 어떤 기업이 어떠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근거로 접근을 해야한다. 이러한 자료는 자선사업이 매우 생활화되어 있는 미국에는 체계적으로 잘 되어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Foundation Center에서 발간한 다음의 자료들이다[65].

65) Bouillon. Th. Bedeutung und Praxis des Fund-Raising am Beispiel zweier amerikanischer Universitatsbibliotheken. Hausarbeit zur Prufung fur den hohorer Bibliotheksdienst. Fachhochschule fur Bibliotheks- und Dokumentationswesen in Koln. 1993. p. 25-26

- National Data Book: 이 자료는 모든 사립재단의 재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정지원의 규모,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과 업무담당대표자에 대한 사항도 상세히 제공된다. 최신 자료는 수시로 Database에 갱신된다.

- The Foundation Directory: 4.500개의 대규모 재단의 정보가 제공되며 역시 Database로 관리된다.

- Foundation Grats Index: 5.000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재단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며 역시 Database로 유지된다.

- Comsearch Printouts: 위의 Foundation Grats Index를 59개의 주제와 17개 지역으로 분류한 재단에 관한 Printout이다. 이외에도 Taft Corporation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Foundation Reporter, Corporate and Foundation Grats가 있다.

독일에서는 이와 유사한 자료로는 Stiftungshandbuch이 있으며 우리 나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발간한 기업사회공헌백서[66]가 있다. 이 백서의 부록인 기업재단편람에 전경련회원사에서 설립한 84개의 기업재단이 수록되어있어 도서관이 후원기업을 선정할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자료에는 회사개요, 매출액순위, 자산순위별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 상장회사총람, 한국기업총람, 한국주요기업사전, 한국경제연감 등이 있고 또 지역별로는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가 발행하는 편람에 각 회원기업 의 기본적 자료들이 수록되어있다. 중소지방에서는 지방의 로터리클럽을 통해서도 소규모 지원기업대상을 찾을 수 있고 지방의 의사회나 변호사회, 회계사회 등의 전문직 단체들에게도 주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기업의 편람이외에 도서관에서 꾸준히 준비할 수 있는 자료로는 일간신문과 업계의 정기간행물이다. 기업이 발표하는 연차보고서도 역시 기업의 재정상태, 기업의 활동과 목적, 기업의 지역사회 참여활동과 문화지원활동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다른 문화예술단체들이 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홍보자료에는 그들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나 후원자 명단이 게재되어있어 역시 유효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5단계: 지원대상과의 접촉

적절한 지원대상기업이 압축되었으면 책임자는 지원기업의 담당자와 접촉을 하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해야한다. 그 업무는 해당기업의 생산품 팔레트, 해당기업이 다른 기관이나 조직과의 접촉사항, 기업 책임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로 이루어진다. 지원기업과의 접촉은 후원사업이 시작되기 1년 전부터 지원기업 담당자와 전화로 이루어진다. 지원기업의 경영진에서 지원사업의 책임자가 결정되면 도서관에서는 그 책임자의 직위를 파악하고있어야 하며, 책임자의 신상명세서도 확보하고 있어야한다. 지원담당자와 만남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데 강조해야 할 사항은 왜 도서관이 해당기업을 잠재후원자로 흥미를 갖게되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한다. 이와 동시에 책임자는 해당기업 담당자에게 미리 작성해놓은 제안서를 우송한 후에 담당자와 만나는 절차를 밟는다. 만남 중에 확인해야할 사항은 그들이 후원하는 목적, 추진하고있는 마케팅이나 PR계획, 제안서에

66) 기업사회공헌백서. Corporate Community Relations White Book. 서울. 전경련. 1998

대한 평가, 언제부터 문화단체를 지원했으며 현재 지원하고있는 문화단체, 과거 후원 사례의 경험, 지원하는 의사결정의 과정 등이다.

지원기업 담당자와의 만남은 언제나 성공적으로 끝난다는 보장은 없다. 지원사업에 대해 반대에 부딪혔을 때 적절하게 대처해야하며, 반대하는 이면에 깔려있는 관심사가 무엇인가 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것을 긍정적이고 개방적이며 진실한 자세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6단계: 지원절차의 협상과 관리

지원기업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면 도서관은 먼저 협의한 사항을 문서화하는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서 수혜자는 지원의 형태 (현금, 물품, 다른 서비스)를 결정함과 동시에 지원기업에 주는 혜택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한다. 이러한 지원절차의 협상에서 도서관이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행사계획에 관하여 자세하면서도 간결하게 기술해야 한다.

7단계: 지원에 대한 평가

재단이나 기업이 학술문화단체에 지원을 계속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그들이 지원을 해준 결과에 대해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는 지원자와 수혜자 양측에 투자로 창출된 여러가지 결과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며, 이것은 차후에 또 다른 지원사업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기반은 지원사업을 일회성의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원계약으로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기업에 따라서는 공식적인 평가보고서를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다.

5.5 도서관 후원기금의 모금방법

1987년 처음으로 도서관 진흥기금이 신설되어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으로 바뀐 이래 거의 10년 동안의 성과는 겨우 2.000만원을 웃도는 금액이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77개의 공공관리기금을 55개로 통폐합하면서 그동안 말뿐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을 폐지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태이다.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기금과 관련하여 최용관[67]은 도서관계에서 한국마사회기금, 정보화촉진기금, 문화복권을 통해 정부의 공공관리기금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도서관인들의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보아 정부의 공공관리기금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도서관인들의 후원기금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도서관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후원기금의 방법을 모색하여 자구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소개되는 후원금의 모금은 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자선, 기부금제도는 지극히 미국적이다. 미국의 기부금제도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토양으로하는 다원주의(pluralism)현상을 토대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유럽과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 글로벌시대에 미국식 경영이 스탠더드처럼 여겨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미국식은 미국이라는 문화적 토양에서만 가능하다. 외국의 방법을 완전히 모방하기란 어려우

67) 최용관, op. cit. p.204-210

며, 또한 완전한 모방은 어차피 실패하기 마련이다. 아래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회 제도적 여건과 정서에 맞는 우리의 독자적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1) 편지캠페인(Direct Mail)

우편을 통하여 도서관에 대한 후원자, 기부자를 유도하는 방법은 각종 사회단체, 예를 들면 Unicef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우편방법은 도서관 실무자들이 원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이 모아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편방법의 매력은 특정인에게 의뢰하는 것보다 부담 없는 넓은 시민층의 다양한 기부자를 확보하는 적절한 수단이며 적은 금액이라도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미국의 자선문화에서 개인의 기부가 전체 금액의 80%이상을[68] 차지한다고 볼 때 도서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에서 투자하는 비용보다 기부의 액수가 적다는 이유와 장기간의 시간을 요한다는 이유로 이 방법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The Sacramento Public Library Foundation에서는 약 1년 동안 이 우편방법을 통해 450명의 기부자를 8.000명으로 증가시킨 좋은 예가 있다[69].

2) 도서관 후원회원제(FLG:Friends of the Library Group)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년간 기부나 후원금 또는 기증을 위해서 도서관에서는 FLG를 유지하고 있다. 이 회원은 도서관 이용자를 의미하는 회원이 아니라 도서관을 사랑하고, 도서관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있는 정년퇴직자, 기업인, 정치가나 가끔은 영화나 TV의 연예인, 문화나 스포츠 분야의 스타들, 학생, 교직원, 도서수집가, 부유층 저명인사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들의 기부금은 세제혜택을 받는다. 이 FLG는 1925년경 하버드대학도서관에서 시작 하여 30년대에는 Columbia, Yale, Princeton, John Hopskin대학도서관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도서관의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제도적인 재정지원의 방법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다[70]. 전국적인 도서관계의 차원에서는 1979년 'Friends of Libraries USA'가 미국도서관협회에 결성되었고, 그들의 업무는 새로운 Friends of Library Groups이 탄생될 때 도움을 주거나 그룹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71]. 처음 이들 기부는 희귀도서나 Manuscripts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후원금으로 정착되었다. Heuser에 의하면 이 FLG는 최근에 와서 현금의 지원, 도서관 홍보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행사로 지역주민과의 문화활동 등을 통해 조직이나 회원 양쪽 모두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점차로 매우 조직화되어

68) Hannah, K.C. Alternative funding for libraies: a plan for success. "The Bottom Line *Managing Library Finances.*" Vol. 10. No.4. p. 169
69) Hannah. op. cit. p. 172
70) Bouillon. op. cit. p. 34
71) Potts, Jannet Ch. and Vincent de P. Roper. "Sponsorship and fundraising in public libraries: American and British perceptions" New Library World. Vol. 96. Nr. 1118. 1995. p. 13

가고 있다[72]. 특히 Yale대학도서관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 이 FLG에 큰 비중을 두고있으며, 이 대학 졸업자의 45%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73].

3) 연중프로그램(Annual Program)

이 연중프로그램을 통한 도서관 기금의 모금은 대학 당국이나 도서관 또는 바로 위에서 기술된 FLG에서 정기적으로 주관한다. 이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행사와 기금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회원의무약정기금: Friends of Library가 약속한 일정 금액이다.

- 지속적인 판매행사: 책가방, 포스트카드, T-셔츠등 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과 전화주문으로 택배가 가능한 물건들을 팔아서 이익금을 도서관에 돌아가게 한다.

-서점: 도서관에서 Friends of Library가 운영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 수탁자기금: 기금이나 증여, 유산을 받기 위해 Friends of Library가 설립하여 운영한다.

- 도서관재단기금: 이것은 특정한 회원이나 수탁자, 사서, 지역유지들로 구성되어 설립, 운영된다.

4) 모금캠페인(Capital Campaigns)

가장 광범위한 기금모금프로그램으로서 이 운동은 흔히 5년에서 10년 간격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 10억달러 이상을 모금한 예[74](Havard대학 20억불, Yale대학 15억불, Cornel대학 12억5천만불, Columbia 대학 10억불, Stanford대학 11억불)는 미국에서 흔히 있다. 이러한 거액의 기금을 위한 캠페인을 시도할 때 도서관은 먼저 타당성조사를 외부 전문가에 의뢰한다. 이러한 모금캠페인은 흔히 도서관의 명성, 인지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는 정년퇴직자, 졸업생, 재학생, Friends of Library, 기관이나 단체의 고위직들이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인적교류는 개인적인 친분, 직접적인 방문으로 이루어지며, 본격적인 기금모금은 편지나 개인적인 청원, 라디오나 TV를 통한 촉구로 이루어진다. 이때 도서관에서는 정기적인 회신, 도서관의 년차보고서, 부로슈어등을 통해 도서관의 상황을 알릴 수 있다.

5) 개인 기부금

후원금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Planned Giving과 Defferred Giving이다. Planned Giving은 현금이나 재산을 어느 특정 시점, 즉 기부자가 더 이상 돈을 필요로 하지 않은 시점, 예를 들어 기부자의 사망 후 수령하는 방법이고, Defferred Giving은 기부자의 유언장에 기부 의사를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영화배우 James Stewart는 영화관련자료(scripts와 manuscripts)를 Brigham Young University

72) Heuser, M. "What friends are for - gaining financial independence" Wilson Library Bulletin. Vol. 60. Nr. 9. 1986. p. 25-27
73) Wilkinson. op. cit. p. 184-185
74) Hunt and Lee. op. cit. p. 131

Library에 기 증했다[75]. 어떻게 도서관에 기부하게 됐느냐는 그의 인터뷰에서 그는 도서관에서 요청이 왔고, 또 기증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예는 도서관이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후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명하고있으며, 여기서 사서들은 구걸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미국에서는 교회, 병원, 대학, 도서관에 이러한 방법으로 한해에 수억 달러의 기금이 들어오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 Retained Life Estates: 주택(농장, 별장, 공동토지의 일부분)을 사망과 동시에 기증
- Gifts of Life Insurance: 기부자는 생명보험의 배당을 기증
- Bequests: 유언장에 의한 유산, 유물의 상속이다. 최근 충남대학교에 토지를 기증한 할머니와 연대도서관 건립기금을 위해 땅을 기증한 한만윤할머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6) 인터넷을 통한 모금[76]

인터넷을 통해 도서관은 기부자의 이름이나 기업명, 기부된 도서(특별히 고서인 경우), 또 앞으로 기부받고싶은 작품 등을 도서관의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서 후원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

7) 특별행사(Special Events)

도서관에서 후원금을 목적으로 특별행사를 마련하는 것은 후원금 자체의 목적도 목적이지만 그보다도 도서관의 홍보에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Fundraising itself is a public relations activity[77]라고도 한다. 후원금을 위한 행사는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 관습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여기에는 도서관의 아이디어가 표출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다음에 소개하는 몇 가지 행사는 여러 도서관에서 계획할 수 있는 종류이며, 특히 도서스폰서링에서는 특출한 아이디어가 이색적이다.

A. 판매행사

고서적, 공부방의 화초, 아이스크림이나 케익도 'Buy a Brick for the New Library' 라는 슬로우건아래 행사를 개최한다.

B. 경매

서재의 가구, 예술품, 고서적, 애견, 심지어는 자동차도 경매형식으로 판매해 이익금을 도서관으로 돌아가게 한다.

C. 자선행사

콘서트, 유명작가와 축제, 사서들의 패션쇼 등을 들 수 있다.

D. 오락프로그램

연극, 신문, 라디오, TV분야의 유명인과 대담, 스포츠행사, 전시회 등의 행사가 여기에 속한다.

E. 낭독회

저자 낭독회나 사인회는 실제로 참석자가 그리 많지는 않아 후원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특별행사기간, 예를 들면 책의 주간, 독서기간을 이용

75) Swan, James. Fundraising for the small public library: a how-to- do-it manual for librarians. New York, London: Neal-Schumam Publ. Inc., 1990. p.114
76) Schleef, K. Sponsoring fur wissenschaftliche Bibliotheken: erste Ansatze." Sponsoring fur B:bliotheken". Hrsg. von Rolf Busch. Berlin. DBI. 1997. (dbi-mateerialien, 164). p.106
77) Swan, op. cit. p. 44

해서 후원자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의 신축, 개축행사를 계기로 잠재후원자를 끌어드릴 수 있다.

F. 도서스폰서링

도서관 후원활동은 도서관에서 특정 목적, 예를 들면 특정분야의 서비스 향상, 도서관의 개축비용의 충당, 특수장서의 수집, 목록의 온라인화, 도서관의 네트워크시설등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도서스폰서링은 후원의 대상을 도서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후원활동을 말한다. 도서 자체가 후원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이유는 다음의 조사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읽기 즉 독서는 과거나 현재에도 가장 선호되고 있는 여가선용 방법에서 다음과 같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78]. 1997년 유럽선진국에서 실시된 조사에서 자전거 타기, 정원 가꾸기, 비디오, 스포츠, 디스코방문등보다 독서는 독일국민이 65%, 영국과 불란서는 63%, 네델란드 53%, 스페인 47%, 이태리 45%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일 여가선용의 종류로는 아직도 최우선 순위에 있다. 도서후원행사는 소규모 기금으로도 가능하며, 도서와 관련된 저자와의 대화나 사인회 같은 행사도 다른 어느 예술가를 초청하는 행사에서보다 비용이 적게든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도서후원행사의 단점이라면 문학이라는 특수 장르 때문에 다른 예술분야나 스포츠분야에서처럼 대중성에서 인기 있는 스타의 부재현상이다. 문학은 외롭고 소리 없는 예술이다. 미술작품은 미술관과 박물관, 연극은 무대, 필름은 영화관, 콘서트는 음악회에서 청중을 만나 교감이 이루어지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반면 문학의 독자는 그 자신만 있을 뿐이다. 또한 독서는 어떤 측면에서 엘리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른 예술 음악, 미술 등은 서로 다른 언어에서도 교감이 이루어지지만 문학은 국경을 넘으려면 번역이라는 길을 통해서만이 이해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후원행사는 다양하며, 이 행사를 주최하는데는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다.

a. 직접적인 도서스폰서링

직접적인 도서스폰서링은 후원의 대상으로 도서 자체를 직접 기부 받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은 주로 해당지역의 기업체나 도서관련 사업체를 활용함으로서 가능하다. 출판사는 출판사에서 발간되는 새로운 단행본이나 정기간행물을 기부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형태의 기부는 재정 면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을지 모르지만 Dresden시립도서관의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10.000DM어치의 도서를 제공받았다[79]. 이외에도 그 지역의 자동차 판매사들은 자동차에 관련된 정기간행물을, 가사용품가게들은 요리관련 정기간행물을, 건설시장은 건축관련 정기간행물을, 여행사들은 여행관련 정기간행물은 후원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부의 대가로 도서관에서는 기부출판사에서 일정 기간동안 그들의 출판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게시판이나 show-case)를 제공한다. 도서관에서 수혜의 대가로 자주 이용되는 방법으로는 'ooo로부터 기증'이란 직인을 도서에 찍는다. 특정 기업에서 도서관에 지속적으로 연속간행물을 기부한 경우 연속간행물의 서가에 기부자의 이름을 명시하거나 또는 각각의 연속간행물에 기부자의

78) Keite. op. cit. p. 78
79) Keite. op. cit. p. 82

이름을 표시하기도 한다.

베를린의 Bruno-Losch도서관이 베를린의 도서상과 도서촉진회가 합작으로 추진한 후원방법은 이채롭다[80]. 이 도서관에서는 도서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 전시회는 도서관에서 구입하고싶지만 구입할 수 없는 도서가 전시되었다. 도서관 이용자는 전시된 도서 중에서 이용자 자신이 읽고싶은 도서를 구입해서 도서관에 기증한다.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기증자의 이름을 도서에 부착한다. 이러한 행사의 개회식에는 그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 또는 기증자를 참여시킴으로서 행사의 홍보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직접적인 도서스폰서링에서 기부도서가 베스트셀러라면 기부기업은 굉장한 홍보효과를 거둔다. 근래에는 기부도서가 전자매체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도서후원방법에 대한 이견도 없지는 않다. 공공의 기관인 공공도서관이 그들의 책임, 즉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제공해야한다는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후원의 기본 원칙은 도서관이 정말 후원자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구입할 수 없는 자료에 국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이 깨어지고 도서관이 너무 후원에만 의존하게되면 도서관 자체의 장서개발의 원칙이 흔들리게될 수 있다.

b. 간접적인 도서스폰서링

간접적인 도서스폰서링은 직접적인 도서스폰서링을 제외한 모든 후원방법을 의미하며 그 범위와 대상은 매우 넓다. 도서관은 그들의 업무에 필요한 비품들, 예를 들면 도서관 이용증, 도서관 브로슈어, 도서관 이용안내책자, 도서관 서가 등을 구비할 때 그 지역의 은행이나 대규모 안경점등 기업 자체의 홍보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의 지원을 도서 대신 다른 비품으로 받을 수 있다. 특정 기업이 도서관 자동차문고의 외벽에 음료수 광고를 일정기간동안 선전하는 대신에 도서관은 도서관 카페의 시설(테이블, 의자, 식기도구, 마루)을 제공받을 수 있다. Bremen의 한 금융연구소는 Bremen의 중앙도서관, 음악도서관, Graphothek과 그 외 13개의 시립 분관도서관을 연결하는 팩스시설을 도서관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팩스의 종이에 '000도서관의 Fax-Net는 000로부터 제공되었다' 라는 연구소를 홍보하고 더불어 도서관의 시설물에 이 연구소의 로고와 이름을 표시하도록 조치했다. Gutersloh시립도서관에서는 스폰서링의 대상물로서 연로한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돋보기 안경을 지원 받고, 그 대가로 도서관은 안경업자의 이름을 도서관 이용증에 명시했다[81].

간접적인 도서스폰서링의 범위는 최근에 와서 새로운 정보전달매체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Achim시립도서관에서는 1997년 Bremen 텔레콤사와 Fielman안경제조회사가 합작으로 CD-ROM Jukbox를 제공했다. 그 대가로 도서관은 일정 기간동안 도서관의 컴퓨터 모니터 휴면화면에 지원기업에 대한 광고물을 뜨도록 조치했다[82]. 또 Wurzburg시립도서관은 이 도시의 Telecom사가, Hamburg시립도서관은 지역예술학교와 건설회사가 지원하여 인터넷 카

80) Keite. ibid. p. 83
81) Keite. op. cit. p. 85
82) Keite. ibid. p. 87

폐를 열었다.

후원활동은 하나의 사업으로서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보다 독특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한다. 간접적인 도서스폰서링의 형태는 도서관이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하는 형식이 아닐 수 도 있다. 특정기업이 그들의 생산품에 대한 광고를 위해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도서관에 직접 지불할 수도 있다. Gutersloh시립도서관은[83] 몇년 전부터 그 지역의 회사들이 그들의 생산품을 도서관의 전시상자에 전시하는 대가로 달마다 도서관에 세를 지불하고 있다. 전시상자는 주제와 관련된 도서가 진열되어있는 곳에 세워둔다. 예를 들면 도서관의 show-window에는 식탁문화를 주제로 이와 관련된 도서를 전시하면서 그 옆에는 식탁과 연관되는 상품인 식사용구(나이프, 포크, 스푼세트)등이 전시된 전시상자를 세워둠으로서 이용자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간접적인 도서스폰서링은 전문서적이나 대중에게 널리 읽혀진 통속소설의 주제를 이용할 수 있다. 그 예로서 Hamburg문학클럽은 대중소설인 '아버지의 가방(Papas Koffer)'에 대한 낭독회를 개최하면서 그 지역의 가방사업자(제조회사와 판매자)의 후원을 받았다[84]. 이 행사중에 가방제조업자는 그들의 상품을 전시하면서 작품의 저자에게 헤밍웨이 시대의 가죽여행가방을 선물하는 흥미 있는 깜짝쇼도 연출하였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도서관은 후원자를 찾는데 매우 개성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했고, 이로 인하여 도서관스폰서링 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도서관이 저자를 주제로 후원자를 발색하는 경우는 Alfred Hichicook행사이다. 히치콕의 작품을 위주로 행사를 개최할 경우 히치콕의 트레이드마크인 시거를 연계시켜 시거제조업 자들로부터 후원을 받는다.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이용한 후원자의 발굴도 흥미 있는 사례에 속한다. 그 예로서 도서관을 야간에도 개관할 경우 밤이라는 시간과 관련된 기업체, 즉 조명업체, 침구업자, 시계업자들을 후원자로 선정하는 경우이다.

이와 비슷한 특별행사로는 도서관이 특정기업과 연계하여 특별표어를 주제로 후원행사를 주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불란서 주간'을 마련하여 불란서와 관련된 기업(음식관련업, 불란서 자동차업체)을 후원자로 유도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서 Stutgart시립도서관은 불란서문화관, 그 지역의 복권사업자, 에어프랑스를 후원자로 하여 불란서-크레올 페스티발을 개최하였다[85]. 이와 비슷한 예로서 도서관이 '영화와 도서'라는 표어로 영화와 관련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영화제작자, 영화배급사, 그 지역의 영화관을 후원자로 선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영화배우까지도 후원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외에도 특정 문학장르, 예를 들면 탐정소설을 프로젝트의 테마로 작품낭독회를 개최하면서 범죄예방과 관련된 방범업체인 안전장비업체나 경보기 제조업체를 후원자로 선정하는 아이디어도 있다.

이외에도 문학, 독서, 도서, 미디어 등을 종

83) Keite. ibid. p. 86
84) Keite. ibid. p. 88
85) Keite. ibid. p. 89

합하여 도서관 자체를 주제로 하여 후원자를 물색할 수 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소주제와 관련된 기업인 출판사, 제본사, 인쇄소, 언론기관, 서점, 종이제조업자, 필기도구제조업자들은 직, 간접으로 도서관과 관련되기 때문에 도서관의 행사에 후원자로 선택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

위에 열거된 후원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외에도 'Fundraising for the small library'에는 수많은 아이디어를 이용한 행사가 소개되어 있다.

5.6 하버드대학의 The Wiedener Library[86]

위에 열거된 행사의 아이디어가 주로 공공도서관을 겨냥한 것이라면 대학도서관을 모델로 한 예로는 하버드대학을 택했다. 아래에 소개된 후원기금의 방법은 말 그대로 발로 뛰는 적극성이 하바드의 명성에 걸맞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버드 대학도서관에는 90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그 중의 하나인 The Wiedener Library는 독일 인문, 사회과학의 장서가 집중되어 있는 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이 독일장서의 수집을 어떻게 해 왔는가를 살펴보면 하버드라는 신화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의 결집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1636년 미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하버드대학은 1.40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서 독일어 장서는 150만 권이다. 이렇게 풍부한 장서를 바탕으로 하버드대학에는 19998/99년 독일과 관련된 문학, 역사, 철학, 예술, 정치 강좌가 약 68개에 개설되어 있다. 미국에서 독일문학 강좌의 시작은 1819년 괴테가 사인한 39권의 작품이 기초가 되었다. 괴테가 그의 작품을 기증할 당시 하버드 직원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후 1858년부터 시작된 독일장서 수집을 위한 기금모금의 노력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The Wiedener Library에는 독일장서 수집을 위해 50개의 재단이 있고, 최근에는 2개의 재단으로부터 각각 25.000달러를 지원 받았고 또한 마이크로 장서를 위해 10.000달러의 기부를 받았다. 이외에도 장서수집을 위해 Friends of the Havard German Collection이란 모임이 있다. 이 모임은 개인과 단체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년간 50달러 이상의 기부를 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독일어장서를 위해 700.000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중 42%는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이 도서관의 책임자는 기금모금을 위해 1995년 2개의 도서재단을 설립하였다. 또한 기금모금의 담당자는 1993년부터 보스턴 마라톤대회에 참석하여 마라톤 참석자들에게 하버드대학의 독일어 장서수집을 위해 직접 현장에서 지원을 호소하는 매우 적극적인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 외에도 1년에 2번씩 독일어장서를 주제로 한 회람을 발간하여 배포한다. 또한 과거 하바드 학생이었거나 또는 임원이었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버드와 관련된 사람들로 구성된 유럽에 있는 Havard Clubs in Europe을 방문하여 후원을 요청한다. 최근에 이 도서관은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로부터 190만 달러를 지원 받았다. 이 지원

86) Olson, Michael P. " Die Sonderstellung der deutschen Sammlungen von Havard im Netz amerikanischer Forschungsbibliotheken. Berichte und Mitteilungen" ZfBB(Zeitschrift fur Bibliothekswesen und Biliographie). 45. Jahrgang. H. 6. 1998. p. 676-684

금의 일부는 19세기 독일의 지역 역사에 관한 장서의 확충을 위한 것이다. 또 이 도서관은 개축공사를 위해 1700만 달러의 기부금도 확보해둔 상태이다. 위의 방법이 관외의 지원을 받는 방법이라면 관내의 재원확보 방법은 소장도서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상호대차이다. 하버드대학 The Wiedener Library의 서지사항 OPAC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게 하고, 상호대차제도를 통해 미국의 학자들에게 장서를 대여한다. 미국의회도서관이 국립도서관으로서 그들의 장서를 관외대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또한 New York Public Library도 역시 관외대출을 금지하고, 상호대차는 상대도서관의 수를 매우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도서관의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이용자 봉사는 소위 틈새시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충분한 매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버드의 독일장서는 상호대차에서도 하버드 교직원과 똑같은 조건(1권당 20달러로 7권까지만 허용되고, 미국과 카나다 이외의 다른 나라는 대출이 허용되지 않고 복사물 서비스만 가능)으로 대출되어 매우 비싼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서관은 미국내의 유일한 특수장서라는 특징을 잘 활용하고, 또한 고비용의 서비스의 대가는 모두 장서수집에 환원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타당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후원기금의 활동은 90개의 도서관중 하나에 불과한 것을 감안한다면 전 하버드대학도서관의 이러한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은 하버드의 명성에 걸맞을 수밖에 없다. 1994-1999 5개년 계획으로 하버드대학은 21억불을 목표로 모금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중이지만 이미 1999년 9월 3개월을 앞두고 벌써 23억불 이상이 달성된 상태이다.

6. 결 론

도서관의 자료는 과거 몇 백년 동안 지속되어 온 종이매체에서 전자매체로 이동되어가고 있으며, 현재는 두 매체가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 인터넷의 등장과 도서관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각각의 도서관 개념이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자료의 공급원으로 인식하는데 까지 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한층 더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받고 있음을 뜻한다. 반면 도서관의 예산은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있어 다른 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 출구가 바로 도서관 정규예산 이외의 재원인 후원기금이다. 도서관을 위한 기금운동이나 후원회활동은 그 자체로서 도서관의 public-relation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경우 도서관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까지 확대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후원문화는 물론 선진외국과는 다른 기부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습의 장소, 지식의 보고, 문화와 오락을 위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장치인 도서관을 위한 후원기금의 활동은 우리 도서관인들의 적극적인 인식의 변화를 통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으며, 또 가능하게 만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도서관의 부수적인 재원을 위한 이론적 배경과 다양한 예시를 통해 우리 정서에 맞는 후원기금의 방안을 마련하여 도서관 활동에 활력소를 불어넣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서관인들이 나서야 할 때다. 곤란할 때일수록 약간의 도움은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참 고 문 헌

국립중앙도서관 지원에 따른 인수확인서 협의건. 인수확인서.

기업메세나지침서(The Business Mecenat Manual)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삼성문화재단. 1999.

기업사회공헌백서=Cooperate Community Relations White Book. 전국경제인연합회. 1998

"도서관법 개정법률안" 도협회보. Vol. 25. Nr 5(1987. 9.10). p. 31-43

"도서관 및 독서기금 폐지". 도서관계. 1999. 6. p. 9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도서관계. 1994. 4 p. 14-19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도서관문화. 제 35권 제 1호(1994. 1,2) p. 25-43

문화재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서울. 1989.(문화예술총서,11)

민주정의당. 국책연구소. 교육문화분과위원회 . "도서관 발전방안" 도협회보. 28(1). 1987. 1,2. p. 3-20

박철규. 기금의 효율적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국방대학원. 1995

서혜란. 공공도서관의 재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세계도서관학사상사. 박상균 편저. 서울. 민족문화사. 1991

LG상남도서관설립 추진방향

용호성. "문화예술단체가 기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메세나. 여름. 1999. p 32-35

윤영대 " 국민독서진흥법 제정에 대한 새로운 견해" 도서관문화. 제 34권 3호(1993. 5,6)

"이 달의 소식. '98 문화시설관리운영평가 우수도서관 인센티브 부여" 도서관계. 국립중앙도 서관. 1999. 10. p. 8

이두영 외.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서울. 도협. 1990

이봉순 외."한국의 도서관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에 관한 연구". 창립 2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199979. p. 7-199

이선실 "기업과 문화예술의 연대. 그 뿌리를 캔다" 메세나. 1999 봄.p. 14-19

이용남 "공공도서관 우리가 살려야 한다" 도서관문화. 1998. 11,12. p. 2-3

이화순. "문화예술지원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 찾아야". 메세나. 1998. 여름. p. 32-33 재단법인 에스콰이어문화재단. 서울.

" '재산사회환원, 유언장' 불름버그 스토리" 매일경제. 1999. 6.25. 1면.

창의적 문화국가건설을 위한 정책제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최용관. "도서관 재정확충을 위한 기금조성에 관한 연구". 한국 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0권 제 1호(1999.3) p. 193-218

캠벨리, 헨리 시. 공공도서관 개발론. 이병목 옮김. 서울. 구미무역. 1985

학산기술도서관 이용자안내

한국교육개발원. 도서관 체제의 확립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1987

한국도서관협회. 1999년도 일반사업계획(안). 제 50차 정기총회자료. 1999.

"회원사". 메세나. 1998. 가을. p 42

Altrichter, H. "New York Public Library(NYPL)" Elektronische Bibliotheken in den USA. Berlin. DBI. 1999 (dbi-Materialien, 188) p. 120-124

Beaubien, A. and M. J. Lynch. "Alternative sources of revenue in academic libraries in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 52. Nr. 9. 1991 p. 573-576

Bouillon, Th. Bedeutung und Praxis des Fund-Raising am Beispiel zweier amerikanischer Universitatsbibliotheken. Hausarbeit zur Prufung fur den hohoren Bibliotheksdisnst. Fachhochschule fur Bibliotheks- und Dokumentationswesen in Koln. 1993

Bruhn, M. Sponsoring. Unternehmen als Mazene und Sponsoren. 2. Aufl. Ff a.M. Wiesbaden. Gabler. 1991

Burlingame, D.F." Library fund-raising in the United States: a second look". Library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Vol. 1. Nr. 1. 1987. p. 108-111.

Burlingame, D.F. " Public Libraries and fundraising" Library Journal. July 1990. 52-54

Busch, R. "Sponsoring fur Bibliotheken? Sponsoring fur Bibliotheken!" Sponsoring fur Bibliotheken. DBI. Berlin. 1997. (dbi-Materialien, 164) p. 6-23

Cutlip, Scott M. Fundraising in the United States: its role in Americas history.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 1990

Curin, M. and Jan Van Til." Understanding philantrophy: Fund-Raising in perspective" Library Development: a future imperstive=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Vol. 12, Nr. 4. 1990. p. 3-24

Fischhler, B." Library fund-raising in the United States: a preliminary report" Library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Vol. 1. Nr.1. 1987. p. 31-34

Grants Magazine. Vol. 12. Nr. 3 Sep. 1989.

Hannah, K. C. "Alternative funding for libraries: a plan for success" The Botton Line: Managing Libraries Finance. Vol. 10. Nr. 4.

1997. p. 169-175

Heery, Mike. "Winning resources" Library Management. Vol. 19. Nr. 4. 1998. p. 252-262

Heuser, M. "What friends are for - gain financial independence" Wilson Library Bulletin. Vol. 600. Nr. 9. 1989 p. 25-27

Hunt, Garey A. and Hwa-Wei Lee. "The ten principles for successful fundraising" Sponsoring fur Bibliotheken. Berlin. DBI. 1997. (dbi-Materialien, 164) p. 130-141

Keite, Uta. " Literatursponsoring-Realitat oder Utopie fur Offentliche Bibliotheken?" Sponsoring fur Bibliotheken. Hrsg. v. Rolf Busch. Berlin.1997.DBI. (dbi-Materialien, 164) p. 75-97

Kuschke, I..Sponsoring con Bibliotheken- Konzeption und Realisierung. Diplomarbeit zur Prufung fur den Studiengang Offentlichen Bibliothekswesen. 1995. Fachhochschule Koln-Fachbereich fur das Bibliotheks- und Informationswesen.1995

Library development and fundraising capabilities=(Systems and procedures exchange center) SPEC Kit Nr. 146, July, August 1988. p. 4-8

Library fundraising: vital margin for excellence. ed. by Sul-H. Lee. AnnArbor. Pierian Pr. 1984

Olson, Michael. Die Sonderstellung der deutscher Sammlung von Harvard im Netz amerikanischer Forschungsbibliotheken. ZfBB 45(1998). H. 6. p. 676-684

Potts, Janet Ch. and V. de P. Roper." Sponsorship and fundraising in public libraries: American and British perception" New Library World. Vol. 96. Nr. 1118. 1995 p. 13-22

Schleef, K. " Sponsoring fur wissenschaftlichen Bibliotheken: erste Ansatz" Sponsoring fur Bibliotheken Berlin DBI. 1997 (dbi-Materialien, 164) p. 102-120

Simon, Matthew."Fundraising as a small business enterprise" The Botton Line: Managing Library Finance. Vol. 10. Nr. 3. 1997. p. 107-111.

Wilkinson, Janet. " Library Fundraising techniques: a study based a tour of North American Library during July 1993" British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Vol.8 Nr. 3. 1993. p. 178-191